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실태조사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 출 문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연구물을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실태조사(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사)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관

(사)문화사회연구소

연구책임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연구진

김재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선영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성연주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연구자문

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이사

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3. 연구 추진 체계	6

II.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현황 및 분석

1. 영등포 일반 현황	8
2. 영등포 문화·관광 자원 현황과 지형도	14
3.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주요 사업 현황	21

III. 영등포 문화·관광 기초조사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방향

1. 영등포 문화·관광 관계자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29
2. 영등포 문화·관광 설문조사 분석 결과	40
3.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종합분석	65

IV.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기본수립을 위한 제언

1.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73
2. 영등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플랫폼 구축	81
3. 영등포 도서관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역학(영등포학) 생태계 만들기	90
4. 영등포형 예술인복지 및 지역안전망 확보	98
5. 영등포 권역별 지역특화문화 재생 및 활성화	106
6. 후속 과제	115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추진 체계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1) 서울의 문화현장이 지역별 문화 활동으로 급격히 변화, 확산되고 있음
 - 생활권 단위 활동들이 지역문화 생태계로 통합
 - 서울시 내의 지역문화 생태계 형성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 (2) 삶의 질 중심의 인식 확산으로 지역 문화·관광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 부각
 - 주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구조가 요구됨
 - 문화도시는 서로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함

1.2. 연구의 필요성

- (1) 영등포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 필요
 -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미래상을 담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됨
- (2) 영등포구의 정체성에 기초한 문화·관광 정책 중기 전략 필요
 - 영등포구 구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내 삶 곁의 문화,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관광 정책 전략 수립 시점 도래
 - 영등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의 새로운 100년 도심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19.7~‘20.6)’의 기초자료로서 연계
 - 영등포구 문화·관광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기본방향 및 정책 수립
 - 중기 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과정으로 단계적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초기단계로서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함

1.3. 연구의 목적

- (1) 구민이 직접 영등포의 미래를 고민하고 구민이 바라는 “모두의 문화도시 영등포”의 미래상을 도출
- (2)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사업 제안
- (3) 영등포만의 특색 있는 전략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문화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영등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 (4)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서 **기초자료로 활용**
 -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제시
 -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언

2.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 계획 기간
 - 제3차 문화도시 지정(2020~2012) 및 본 사업(2022~2026)

(2) 공간적 · 대상적 범위

- 영등포구 행정구역
- 영등포구 거주 구민
- 영등포 기반 예술가 및 활동가, 문화예술단체, 문화공간 운영자
- 영등포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공문화기관 근로자(공무원)

(3) 내용적 범위 : 영등포 중장기 문화 ·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영등포 일반현황 및 도시문화자원 조사 · 분석
- 영등포 공공재원(문화도시사업 등) 연계를 위한 도시자원 활용 전략 제시
- 영등포 문화 · 관광 발전방향 플랜 제안
- 영등포 문화예술인 및 시민과의 담론 공유

2.2. 연구 내용

(1) 영등포 중장기 문화 ·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및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 영등포 문화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 분석
- 영등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 · 관광 정책 전략 수립

(2) 영등포 지역 문화자원과의 협력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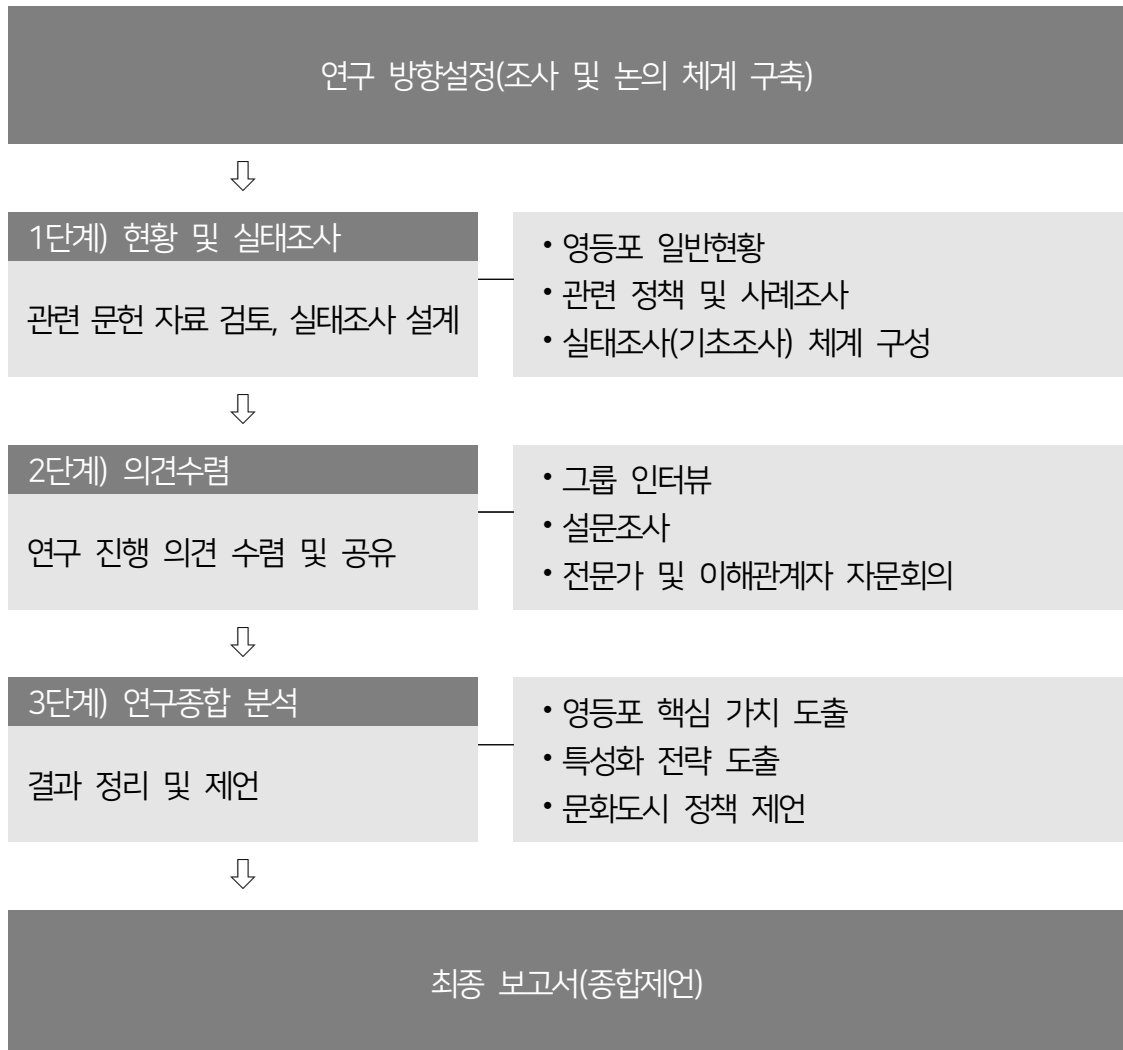
- 영등포 내 문화예술 공간 및 단체, 인력과의 협력방안
- 영등포 구정 정책과 연계, 영등포 문화 · 관광 정책 선도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3) 지역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 지역문화 주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추진으로 지역문화 가치 확립과 제고 방안 마련
- 외부의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정책 주체들과의 연계와 협력망 구축



3. 연구 추진 체계



II.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현황 및 분석

1. 영등포 일반 현황
2. 영등포 문화·관광 자원 현황과 지형도
3.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주요 사업 현황

II.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현황

1. 영등포 일반 현황

1.1. 인구현황

(1) 서울시 인구현황

자치구	세대	인구(명)										1인 가구 (2018년)
		합계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4,315,921	10,025,927	4,887,068	5,138,859	9,740,398	4,751,696	4,988,702	285,529	135,372	150,157	1,468,146	1,229,421
영등포구	174,309	402,478	201,944	200,534	368,402	182,913	185,489	34,076	19,031	15,045	57,350	53,477
종로구	73,942	162,860	78,523	84,337	151,767	73,952	77,815	11,093	4,571	6,522	27,394	25,326
중구	62,593	136,663	67,030	69,633	126,409	62,161	64,248	10,254	4,869	5,385	23,025	20,803
용산구	109,911	244,989	119,499	125,490	228,830	110,478	118,352	16,159	9,021	7,138	38,531	34,240
성동구	136,466	311,290	152,134	159,156	303,158	148,510	154,648	8,132	3,624	4,508	43,662	40,706
광진구	164,173	368,337	177,749	190,588	352,692	171,103	181,589	15,645	6,646	8,999	47,347	56,337
동대문구	163,606	363,779	178,958	184,821	346,551	172,440	174,111	17,228	6,518	10,710	58,764	55,593
중랑구	181,448	403,776	199,959	203,817	398,812	197,927	200,885	4,964	2,032	2,932	64,449	49,207
성북구	191,465	454,114	218,857	235,257	441,590	214,094	227,496	12,524	4,763	7,761	70,204	55,136
강북구	143,680	317,875	154,784	163,091	314,090	153,356	160,734	3,785	1,428	2,357	59,808	40,872
도봉구	138,603	337,594	164,883	172,711	335,280	163,953	171,327	2,314	930	1,384	58,070	30,848
노원구	217,058	539,829	261,141	278,688	535,282	259,204	276,078	4,547	1,937	2,610	79,968	51,280
은평구	207,410	486,159	234,228	251,931	481,663	232,383	249,280	4,496	1,845	2,651	79,957	48,888
서대문구	140,007	324,089	153,618	170,471	310,069	149,061	161,008	14,020	4,557	9,463	51,708	44,795
마포구	174,181	385,605	181,368	204,237	373,629	176,863	196,766	11,976	4,505	7,471	51,961	56,837
양천구	177,339	463,931	227,911	236,020	459,849	226,091	233,758	4,082	1,820	2,262	60,487	34,304
강서구	262,108	600,240	290,942	309,298	593,708	287,751	305,957	6,532	3,191	3,341	82,937	73,011
구로구	175,844	439,850	219,971	219,879	406,748	201,077	205,671	33,102	18,894	14,208	64,952	44,151
금천구	110,072	252,868	129,510	123,358	233,371	118,471	114,900	19,497	11,039	8,458	37,191	34,564
동작구	180,841	410,487	198,593	211,894	397,618	192,829	204,789	12,869	5,764	7,105	61,607	56,872
관악구	268,226	519,953	260,386	259,567	502,117	251,923	250,194	17,836	8,463	9,373	74,518	112,733
서초구	173,215	435,258	208,297	226,961	431,027	206,185	224,842	4,231	2,112	2,119	56,455	41,137
강남구	232,115	549,043	262,829	286,214	544,028	260,305	283,723	5,015	2,524	2,491	70,029	62,727
송파구	278,340	684,338	331,364	352,974	677,489	328,073	349,416	6,849	3,291	3,558	86,062	63,451
강동구	178,969	430,522	212,590	217,932	426,219	210,593	215,626	4,303	1,997	2,306	61,710	4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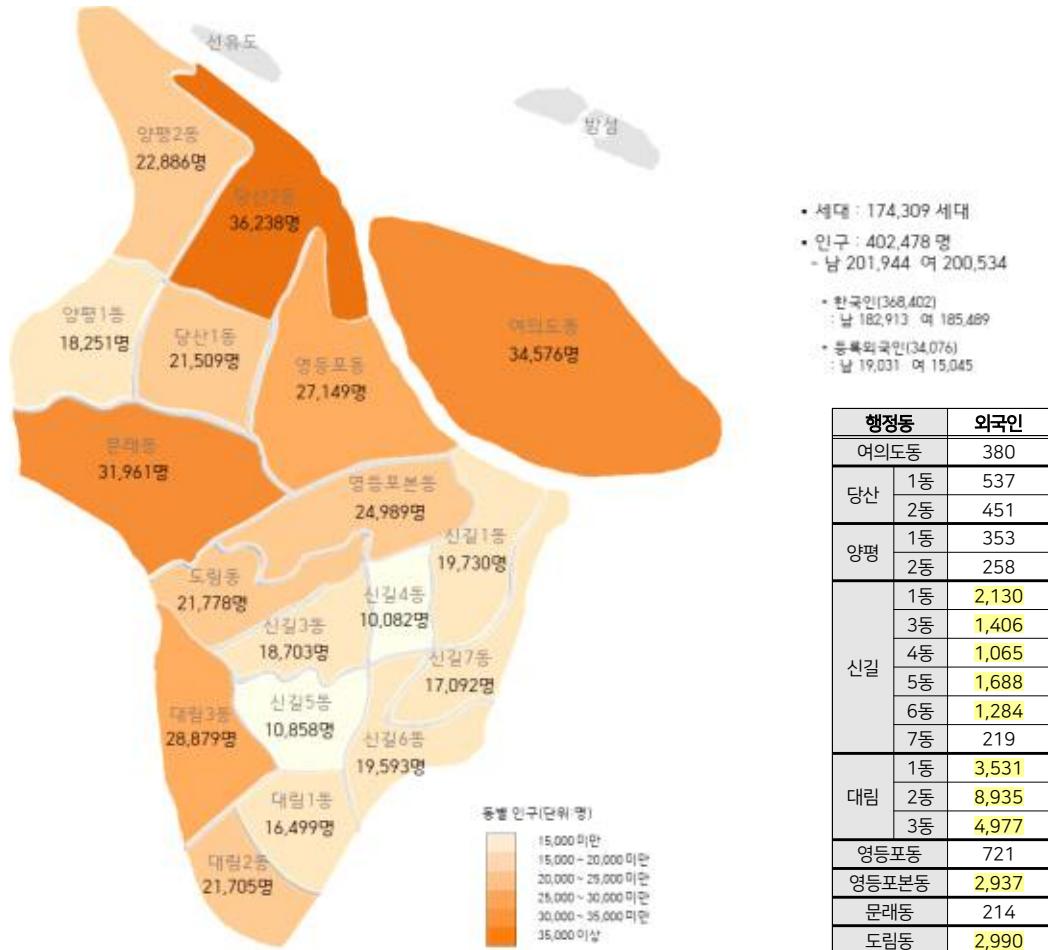
* 서울열린데이터광장(www.data.go.kr), 주민등록인구(2019.3/4분기)

* 2018 통계청 기준 1인 가구 인구 및 서울시 인구 9,765,623명 작성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외국인 등록증)

※ 2020년 1월 통계청 기준. 2019년 전국 단위 인구 관련 통계(시도별, 주제별, 기관별 등)는 아직 미게시된 상태

(2) 영등포 인구현황



행정동783	계	연령구분(단위명)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402,478	27,880	26,141	59,105	72,484	62,599	68,484	28,435	57,350	
여의도동	34,576	3,122	2,917	4,117	5,534	5,580	5,113	2,331	6,852	
당산	1동 21,509	1,334	1,152	3,555	4,379	3,148	3,211	1,559	3,171	
	2동 36,238	2,723	2,334	7,289	7,819	5,027	4,752	2,040	4,250	
양평	1동 18,251	1,417	1,066	2,810	4,472	2,886	2,226	971	2,403	
	2동 22,886	1,835	1,777	3,753	5,096	3,552	3,151	1,323	2,399	
신길	1동 19,730	839	1,061	3,405	3,371	2,966	3,418	1,454	3,216	
	3동 18,703	1,376	1,286	2,322	2,802	2,927	3,579	1,486	2,925	
	4동 10,082	408	672	1,348	1,260	1,527	2,132	949	1,786	
	5동 10,858	537	732	1,292	1,357	1,776	2,356	941	1,867	
	6동 19,593	1,207	1,263	3,046	3,187	2,882	3,419	1,505	3,084	
	7동 17,092	1,680	1,570	2,407	2,912	2,822	2,612	1,086	2,003	
	대림	1동 16,499	807	996	2,180	2,210	2,659	3,602	1,310	2,735
2동 21,705	1,110	893	2,464	3,266	3,714	5,646	1,742	2,870		
3동 28,879	1,732	1,809	3,552	4,522	4,545	6,279	2,355	4,085		
영등포동	27,149	1,301	971	5,992	6,534	3,480	3,797	1,763	3,311	
영등포본동	24,989	1,772	1,562	3,027	3,882	3,931	4,934	2,099	3,782	
문래동	31,961	1,370	1,112	2,884	3,961	3,482	4,162	1,964	2,843	
도림동	21,778	3,310	2,968	3,662	5,920	5,695	4,095	1,557	4,754	

* 서울열린데이터광장(www.data.go.kr), 주민등록인구(2019.3/4분기)

(3) 인구현황 분석(주민등록인구 기준)

- 서울시 총 인구 10,025,927명 (주민등록인구 : 9,740,398명, 등록외국인 : 285,529명)
 -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9,861명(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중에서 서울시 인구가 약 18.7%(9,740,398명)를 차지
 - 총 인구 대비 연령대별 인구수(내림차순)

65세~100세 이상	45~49세	25~29세	35~39세
1,468,146명 (약 14.6%)	840,237명 (약 8.6%)	811,282명 (약 8.3%)	794,359명 (약 8.1%)

* 연령대별 인구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www.data.go.kr),주민등록인구(2019.3/4분기) 기준

- 1인 가구(2018년 기준) 주요 내용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1인 가구는 약 12.6%(1,229,421명)
 - 1인 가구 연령대별 인구수(내림차순)

합계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578,491명 (약 47%)	195,284명 (약 15.8%)	155,740명 (약 12.6%)	118,254명 (약 9.6%)	109,213명 (약 8.8%)
20~39세의 청년층이 1인 가구 총 인구수의 약 47%를 차지				

*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 내용 산출(서울시 인구(9,765,623명), 1인 가구(1,229,421명))

■ 영등포 인구현황 주요 내용

- 총 인구 402,478명(주민등록인구 : 368,402명(91.5%), 등록외국인 : 34,076명(8.5%))
 - 당산2동(36,238명), 여의도동(34,576명), 문래동(31,916명) 순으로 인구수가 많음
 - 총 등록외국인 대비 대림1~3동이 약 51.1%(17,433명), 신길1~7동이 22.8%(7,792명)를 차지
 - 총 인구 대비 연령대별 인구수(내림차순)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30~39세	50~59세	40~49세	20~29세	65세 이상
72,484명 (약 18%)	68,484명 (약 17%)	62,599명 (약 15.5%)	59,105명 (약 14.6%)	57,350명 (약 14.2%)

- 1인 가구(2018년 기준) 주요 내용
 - 영등포 총 인구(2018 기준 403,600명) 대비, 1인 가구는 13.2%(53,477명)
 - 1인 가구 연령대별 인구수(내림차순)

25~29세	30~34세	35~39세	45~49세
10,054명 (약 18.8%)	8,547명 (약 15.9%)	5,512명 (약 10.3%)	3,894명 (약 7.2%)

*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 내용 산출(영등포구 1인 가구(53,477명))

■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인구 대비 영등포 주요 인구현황

구 분	영등포 주요 인구현황			
	인구수 (402,478명)	등록외국인 (34,076명)	65세 이상 고령자 (57,350명)	1인 가구 (53,477명)
타 자치구 인구 대비	14번째로 많음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 체류	16번째로 많음	7번째로 많음
서울시 인구 기준 (주요 인구 비율)	약 4.1%	약 11.9%	약 3.9%	약 4.3%

1.2. 주요기관 행정 조직(도)

(1) 영등포구청



■ 문화(예술) · 관광 정책 및 사업 유관 부서 현황

- 미래비전추진단(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주요 유관업무

미래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획 :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토요문화활동 지원 - 도서관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당산동 서영물류 부지 도서관 조성,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추진, 여의도 MBC부지 도서관 조성, 신길(3-5-7동, 밤동산)마을 도서관 조성, 당산골 문화의거리
사회적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지원 : 청년정책수립,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 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주요 유관업무

아동청소년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누리정책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련 업무 - 다누리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복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정책 :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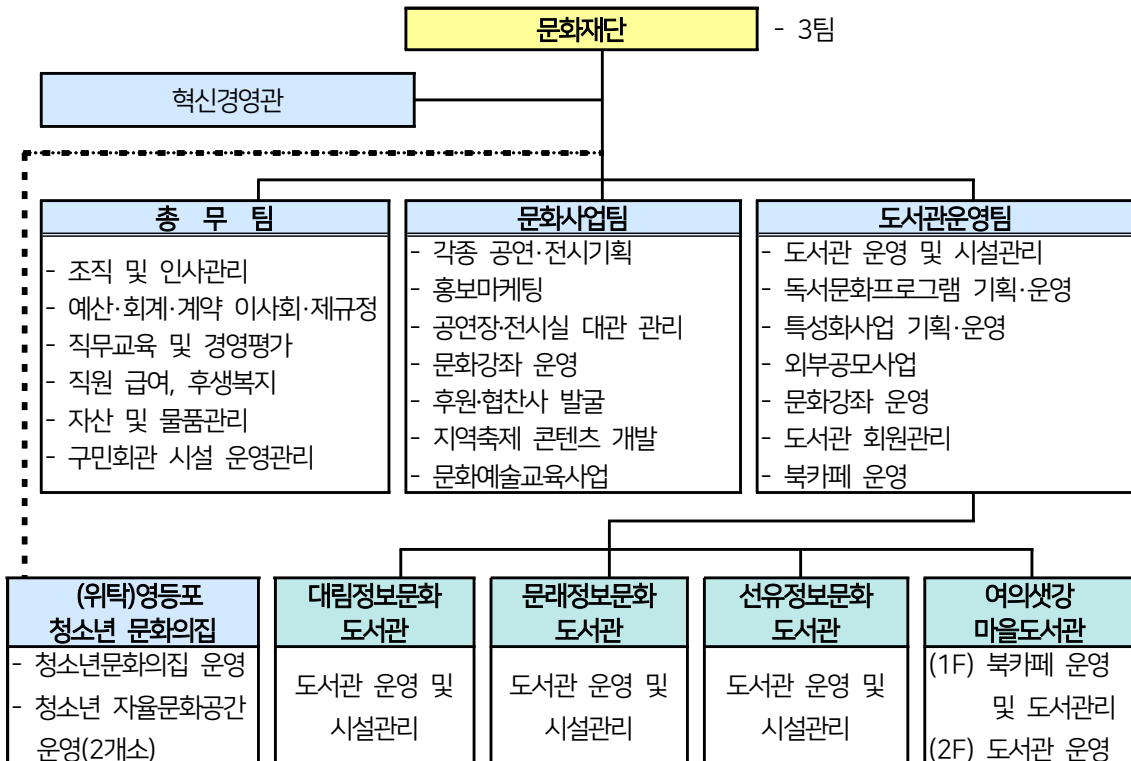
- 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 도시재생과 주요 유관업무

도시 재생과	- 재생기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관광진흥팀)
 -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주요 유관업무

문화예 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 타임스퀘어 문화시설,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영등포문화원 운영 지원 등 - 문화축제 : 여의도 봄꽃축제 추진,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서울세계불꽃축제 지원 총괄, 구립시니어/여성/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등 -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통합문화이용권, 문래예술 창작촌 지원 및 육성, 문화재 관련 업무, 지역예술동호인 활동지원, 영등포예술인연합회 활동지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등
관광진 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책 및 사업 :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광활성화 추진, 영등포 대표 관광브랜드 개발, 관광브랜드세일 및 스탬프투어 사업,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선유 걷고싶은 거리 관광명소화업무, 도보관광코스 개발 - 관광홍보 :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관리, 관광블로그 및 SNS채널 운영,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리,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 문화유통업소 지도 감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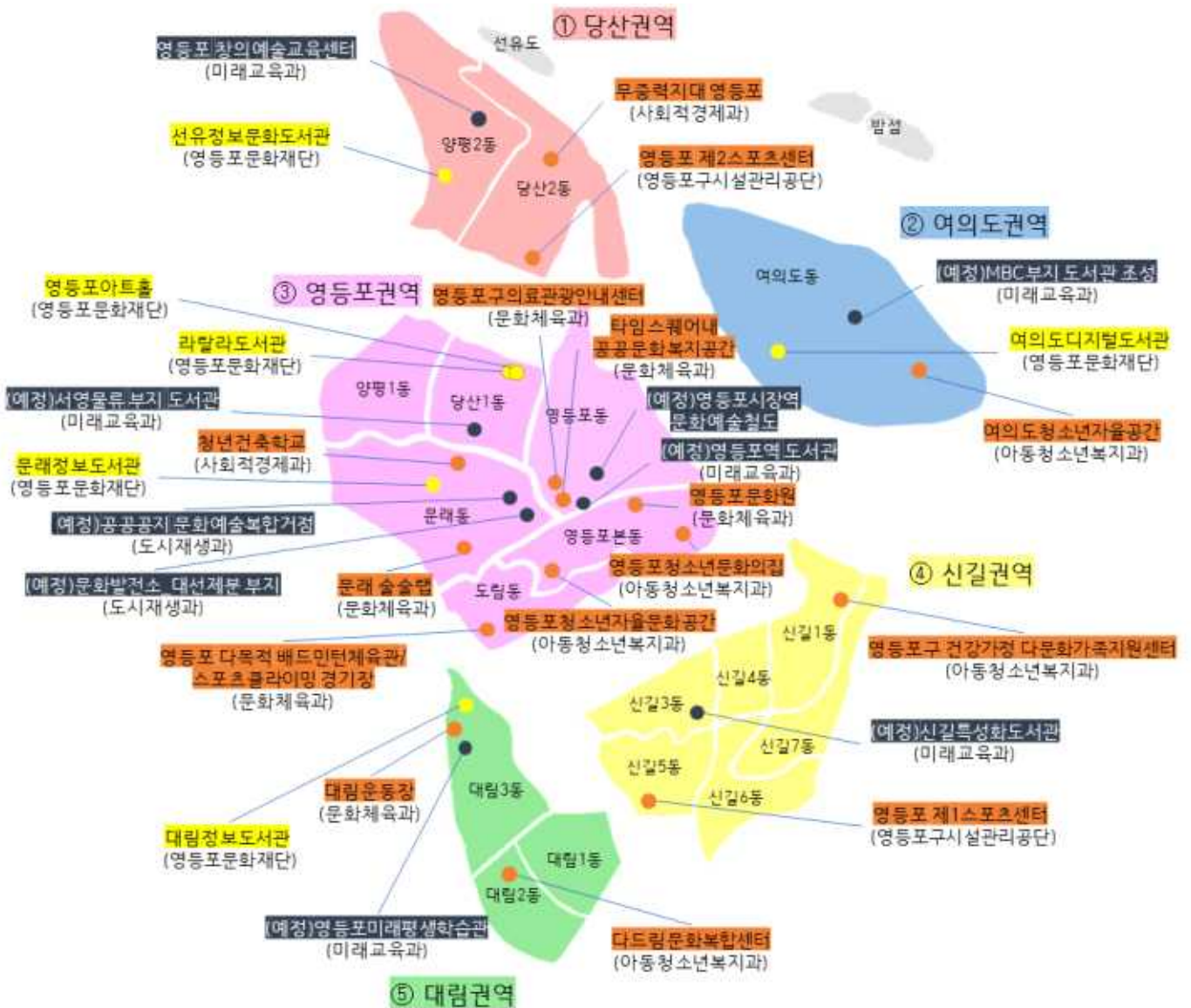
(2) 영등포문화재단



2. 영등포 문화·관광 자원 현황과 지형도

2.1. 시설(운영주체별) 및 주요 축제 현황

(1) 영등포구 관할 시설(영등포구청 | 영등포문화재단 | 건립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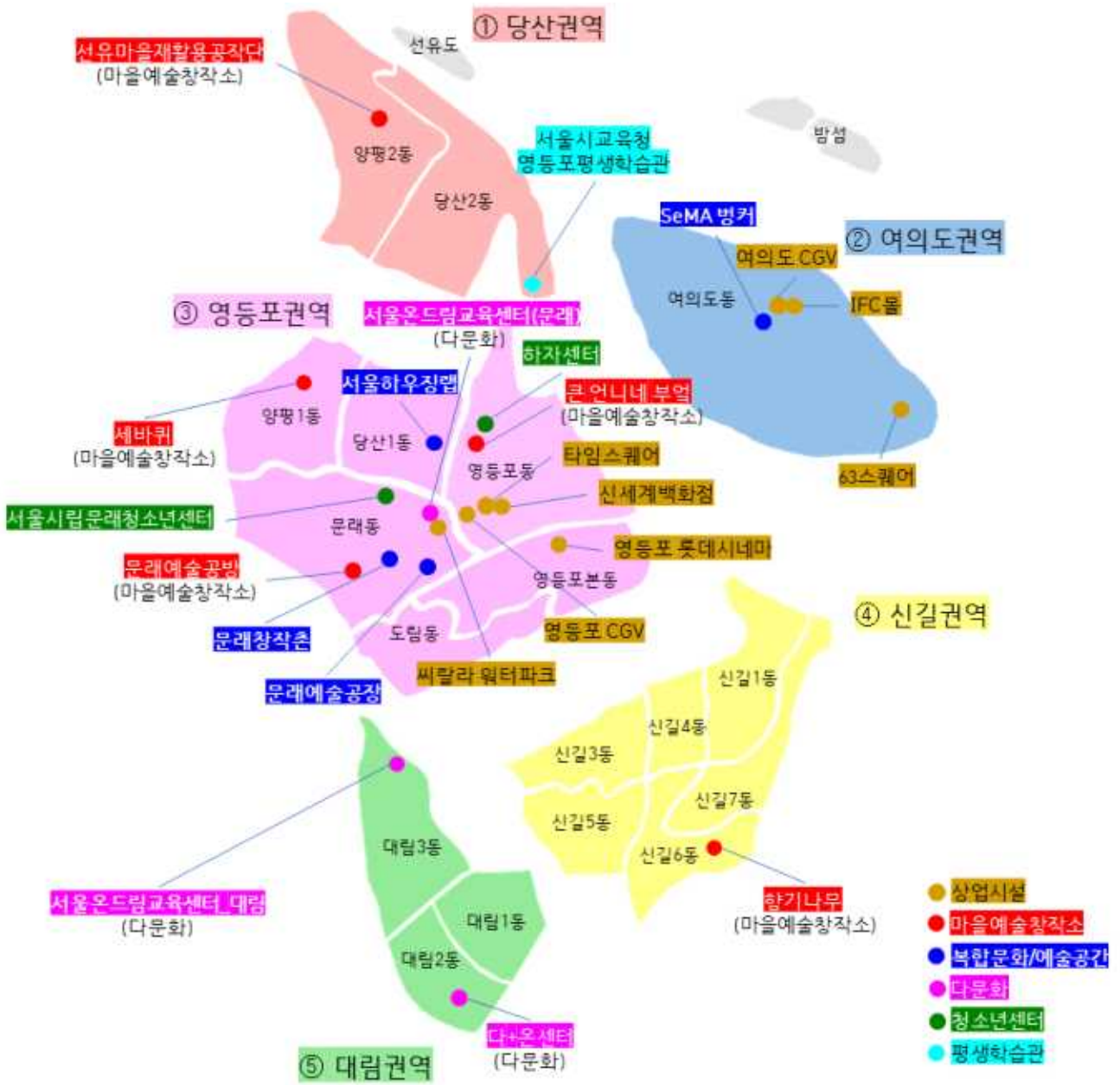
■ 영등포구 관할 시설 주요 내용

구분	(위치)공간명	관할	구분	(위치)공간명	관할	구분	(위치)공간명	관할
교육 문화 (1곳)	(양평2동)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재단	문화 예술 (7곳)	(당산1동) 영등포아트홀	재단	청 소 년 /청 년 (5곳)	(문래동) 청년건축학교	구청
	(여의도동) 여의도디지털도서관			(영등포동) 타임스퀘어내 공공문화복지공간	구청		(영등포본동) 영등포청소년 문화의집	
	(문래동) 문래정보도서관			(영등포본동) 영등포문화원			(영등포본동) 영등포청소년 자율문화공간	
	(대림3동) 대림정보도서관			(문래동) 문래 스포스랩			(여의도동) 여의도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신길4동) 예정)신길 특성화도서관			(문래동) 예정)공공공지 문화예술복합			(당산2동) 무중력시대영등포	
	(양평2동) 예정)창의예술 교육센터			(영등포동) 예정)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다 문 화 (2곳)	(신길1동) 영등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림3동) 예정)YDP미래평생 학습관			(문래동) 예정)문화발전소 대선제분 부지		(대림2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당산1동) 예정)서영물류부지 도서관	(신길5동)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관 광 홍 보 (1곳)	(영등포동)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영등포동) 예정)영등포역 도서관	(도림동) 영등포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구청				
	(여의도동) 예정)MBC부지 도서관	(대림3동) 대림운동장						

■ 영등포구 관할 시설 주요 특성

- 대부분의 시설이 영등포구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
- 신길동과 대림동 일대에는 문화시설이 타 행정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도서관이 지역 밀착으로 분포하고 있어 거점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높음
- 건립 예정 중인 시설에 대한 사전단계로서 운영계획 검토 및 연계 고려
- 유관 시설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의 확장성 가능

(2)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민간 시설 (영등포구 관할 이외 시설)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민간 시설 등 주요 내용

구분	(위치)공간명	구분	(위치)공간명	구분	(위치)공간명
상업 시설 (8곳)	(여의도동) 여의도CGV	마을 예술 창작소 (6곳)	(양평2동) 선유마을재활용공작단	복합 문화 예술 공간 (4곳)	(여의도동) SeMA벙커
	(여의도동) 여의도 IFC몰		(양평1동) 세바퀴		(당산1동) 서울하우징랩
	(여의도동) 63 스퀘어		(영등포동) 큰언니네 부엌		(문래동) 문래창작촌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문래동) 문래예술공방		(문래동) 문래예술공장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신길6동) 향기나무	청 소 년 (2곳)	(문래동)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영등포동) 영등포 CGV		(문래동)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영등포동) 하자센터
	(문래동) 씨랄라 워터파크	다 문 화 (3곳)	(대림3동)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평생 학습 (1곳)	(당산2동) 서울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본동) 영등포 롯데시네마		(대림2동) 다+온센터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민간 시설 주요 특성

- 영등포구 관할 시설 분포와 비슷하게 영등포구 중심부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등록외국인 인구수에 비해 다문화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당산권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창작자가 운영하는 특색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 중심의 자발적 문화 행사 및 공간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
- 영등포구에 소재하지만 지역과의 접점이 부족한 시설들과 어떤 협력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3) 주요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현황

■ 영등포 행정 기관 및 민간 주관 행사

사업명	주요 내용	주관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매년 4월 국회 돌레길을 따라 열리는 봄맞이 꽃 축제 • 예술축제로 영등포구 문화브랜드 이미지 정착 	구청 문화예술팀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개최로 구민화합과 소통을 이루고 일상 속 문화향유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 	구청 문화예술팀
서울세계 불꽃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속적 진행 	민간
서울국제 초단편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영화제의 유지와 영등포초 단편영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 문화 특구 영등포의 브랜드를 정립 • 영등포 초단편영화아카데미(구민대상 영화제작 워크숍), 사전 제작지원, 구민심사단 운영 등 	구청 문화예술팀
SAAF (Street Art Award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힙합뮤지션+그래피티 아티스트 라이브 퍼포먼스, 버스킹 • 청소년대상 일러스트 디자인·캐릭터경연대회·공모전 출품작으로 제작된 의류 패션쇼 • 그래피티 아티스트 & 캐릭터공모전 작품 전시회 	구청 문화체육과

* 2019년 기준, 국별 구의회 보고자료 참고

■ 영등포 주요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특성

- 서울시에서는 2019년 10월 4~11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참여도 1위(51.3%)에 '여의도 봄꽃축제', 2위(49.6%)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 3위(36.2%)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차지함
 -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축제 1~3위가 모두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음. 그만큼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해 영등포구만의 브랜드 정립과 개발이 가능한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
 - 영등포 구민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만의 축제 및 문화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행사 개발을 위한 방향①
 - 시책 사업 혹은 관행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행사의 방향②
 - 이와 같이 두 가지 방향①-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 구상
 - 또한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봄꽃 축제, 불꽃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권한 설정/선택이 필요

- 공식적인 정보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 주도의 문화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행정기관 중점 행사 이외 민간 주도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진행 중인 민간 주도 행사 현황 파악이 필요)

2.2. 권역별 특징

- ※ 본 보고서의 권역분류기준은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진행중)”의 권역분류기준에 준함
- ※ 향후, 권역 분류 시 고려 사항
 - 특정동의 명칭으로 권역명을 지정할 경우의 한계성
 - 특정동이 권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임
 - 타 행정동이 소외될 여지가 있으며 동네의 다양한 내용을 담기 어려움
 - 향후 권역 분류 시 ‘특징이나 생활권 중심’의 구분 방식 제언
 - 교통 시설 중심으로 구분 : 영등포동과 도림동을 지나는 철도 기준, 경인로를 통한 동/서 구분
 - 특징 중심의 행정동으로 구분 : 대림권역이나 여의도권역과 같이 뚜렷하고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행정동들을 연결하여 구분
 - 자연환경 중심으로 구분 : 한강, 샛강, 안양천과 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구분

(1) 당산권역(양평2동, 당산2동)

-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공공 문화시설은 부족
- 카페, 공방, 편집샵,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예술가의 유입 등으로 특색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

(2) 여의도권역(여의도동)

- 금융, 정치, 언론 등 복합기능 지역으로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 클래식 공연과 관련한 인프라와 복합상업시설이 갖춰져 있음
- 청소년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 조성&운영
- 매년 여의도 봄꽃축제와 불꽃축제 개최

(3) 영등포권역(양평1동, 당산1동, 문래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도림동)

- 영등포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 상업, 준공업 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
- 그 중 예술 · 준공업 영역은 문래동, 관광상업은 영등포동에 집중
- 이질적인 성격의 영역들이 문래동과 영등포동을 중심으로 양분화 되어 있음

(4) 신길권역(신길1~7동)

- 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2006. 10. ~ 2020)로 선정
- 2019구정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역세권 개발 ⇒ 지역 활성화 및 골목 재생사업 추진 중
- 공공복합청사 등 건립 예정(신길특성화도서관 / 공공문화 복합센터건립 예정)

(5) 대림권역(대림1~3동)

- 영등포등록외국인 51% 인원이 거주하며 다문화가족&중도입국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중

3.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주요 사업 현황

3.1. 주요 기관 재정규모

(1) 서울시 예산총괄규모

자치구	예산총괄규모 (단위 : 백만원)									재정 자립도 (2019)
	예산현액			세입			세출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53,599,212	41,695,176	11,904,036	56,100,312	44,130,328	11,969,984	48,564,304	38,602,379	9,961,925	76.5
본청	36,547,866	25,477,177	11,070,689	38,112,058	27,094,753	11,017,305	34,335,451	24,698,783	9,636,668	78.4
자치구	17,051,346	16,217,998	833,347	17,988,254	17,035,575	952,679	14,228,853	13,903,596	325,257	28.1
영등포구	656,992	623,558	33,435	681,914	648,368	33,546	564,757	545,501	19,256	35.7
종로구	497,363	434,814	62,549	523,272	460,160	63,112	390,774	373,126	17,648	47.4
중구	533,091	458,148	74,943	548,409	475,183	73,226	392,769	371,433	21,336	54.9
용산구	455,090	419,990	35,099	480,243	443,951	36,292	364,558	354,318	10,240	39.2
성동구	540,506	515,668	24,838	557,891	529,284	28,607	471,020	452,431	18,589	32.5
광진구	552,302	537,339	14,963	570,638	555,485	15,153	481,121	472,652	8,469	26.7
동대문구	659,976	633,175	26,801	660,338	633,575	26,763	566,090	557,456	8,634	23.8
중랑구	707,824	692,155	15,668	742,065	726,512	15,552	593,932	582,878	11,054	18.1
성북구	773,886	753,061	20,825	797,323	778,164	19,159	644,686	631,364	13,323	19.6
강북구	642,337	627,805	14,532	673,745	657,898	15,847	565,232	557,970	7,262	16.8
도봉구	618,862	604,892	13,970	664,004	649,336	14,668	531,804	526,637	5,167	17.8
노원구	974,126	955,955	18,171	1,010,865	993,147	17,718	810,983	800,809	10,174	15.4
은평구	803,633	783,492	20,141	839,319	818,536	20,783	673,609	666,177	7,432	17.5
서대문구	599,956	574,227	25,729	639,710	613,551	26,159	489,641	480,221	9,421	24.1
마포구	679,344	588,498	90,846	701,909	608,721	93,187	529,466	506,562	22,903	30.7
양천구	727,238	665,553	61,684	739,427	676,356	63,072	607,165	581,431	25,734	24.5
강서구	916,322	896,264	20,058	938,453	916,987	21,466	777,674	761,165	16,510	19.7
구로구	692,188	673,825	18,363	717,699	699,308	18,391	595,531	588,480	7,051	21.8
금천구	523,234	508,337	14,897	546,935	532,061	14,875	420,363	414,870	5,493	25.3
동작구	615,976	600,741	15,235	648,190	631,646	16,544	526,097	518,691	7,406	26
관악구	729,688	700,731	28,957	748,480	717,826	30,654	628,958	615,126	13,833	18.7
서초구	692,715	639,831	52,884	691,056	638,871	52,185	565,191	554,899	10,292	53.3
강남구	882,802	839,872	42,930	1,154,965	1,013,994	140,970	713,916	693,034	20,882	54.4
송파구	826,457	784,256	42,201	851,191	808,496	42,696	704,723	692,074	12,648	38.4
강동구	749,439	705,811	43,628	860,211	808,159	52,052	618,793	604,293	14,500	22.2

* 서울열린데이터광장(www.data.go.kr), 서울시 예산결산총괄 통계(2018)/서울시 재정자립도 통계(2019)

- 영등포구는 자치구 예산현액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5번째로 높은 예산규모를 지니고 있음
- 영등포구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7번째이며,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세임
 - 2015년(46.3), 2016년(45.1), 2017년(42), 2018년(37.9), 2019년(35.7)

(2) 영등포구 주요 기관 및 부서 재정규모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2019.12.기준)

(단위: 백만원)

계	문화환경 기반조성	문화브랜드 지역문화육성	생활체육교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체육시설	관광진흥 기반구축	문화관련 진흥	기본경비
16,751	3,269	3,712	516	583	8,321	219	10	119

※ 2018년 총예산 22,502백만원 / 2019년 총예산 17,152백만원 / 2020년 총예산 22,308백만원

- 영등포문화재단(2019.12.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총무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라랄라,북카페)	대림정보 문화도서관	문래정보 문화도서관	선유정보 문화도서관	여의디지털 도서관
계	10,479	2,810	2,338	2,934	988	712	442	242
구비세출	8,868	2,785	1,326	2,632	924	634	357	207
보조금	1,611	25	1,011	302	73	78	85	34

3.2. 영등포 주요 기관 사업

(1) 영등포구청 주요 사업(2019 예산 기준)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19년 예산	
문화예술지원	- 구립지역예술단체 지원과 구상기념사업 추진 - 제15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개최 -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 지역문화행사 및 부군당제 행사지원 -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 지원	2,078	
문화관광 지원	- 관광 진흥기반 구축 - 문화유통업소 지도점검 - 선유 걷고싶은거리 관광명소화	229	
거버넌스 /주체 지원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지원플랫폼 조성 - 구정의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문화혁신	1,996	
도서관 /독서 문화	- 언제 어디서든 책 읽는 영등포 조성	492	
다문화	-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106	
신 규	공공 (문화)시설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중점) -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YDP미래평생학습관 설립 -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
	도시재생 촉제지원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 영등포거리예술축제(신규)	-

■ 도시재생과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19년 예산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 산업유산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 - GS주차장부지, 청년희망복합타운 조성 - 기계금속제조업 산업재생 추진	민간투자 사업

■ 미래비전추진단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19년 예산
구정발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추진관리		-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 구정운영 4개년계획 등 핵심사업 체계적 분석·관리	65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간, 민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	876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지원플랫폼 조성		- 청년 활동 거점 공간「무중력시대-영등포」조성 및 운영(개관식 개최('19. 10. 1.)) - 청년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19
언제 어디서든 책 읽는 영등포 조성		- 독서 공동체 활성화 -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	492
신길문화체육 도서관 건립		- 문화·스포츠·커뮤니티 등 복합기능을 수행 -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	-
신규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를 건립 - 다양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YDP미래평생학습관 설립	- 「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센터」 이전 - 평생학습강의실, 맘든든센터, 스마트교육장, 일자리플랫폼 등	-

■ 복지국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19년 예산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및 생활 적응력 제고 - 다문화 사회 조성	106
신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 공공복합시설 건립,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 -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혜택의 균형성 확보	-

(2) 영등포문화재단 주요사업(2019.12.기준)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19. 12.	
		구비세출	보조금
문화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축제 콘텐츠 기획 - 공연 및 전시 기획 - 문화예술 협력사업 - 문화예술 교육사업 - 생활예술 지원사업 -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관리 - 영등포 라키비움 - 영등포 시민예술단 - 예술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지역예술협력 -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및 추진 -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 	1,326	1,011
도서관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 확충 - 책 읽는 영등포 - 영등포 북 페스티벌 	2,632	302
신규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영등포 추진 		

(2) 영등포문화재단 전략과제와 세부실행사업

※ 영등포문화재단은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을 수립함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실행사업	부서
1.문화협치 기반구축	1-1 공유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유 소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문화 사업팀
		도서관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도서관 운영팀
	1-2 민관산학 거버넌스 정착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 지원	문화 사업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문화 사업팀
		문화재단 사업자문단 설치 운영	총무팀
	1-3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도서관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활성화	도서관 운영팀
		공공기관·민간단체 협력 내실화	문화 사업팀
	글로벌(Global) 교류 확대	문화 사업팀	
2.문화도시 환경조성	2-1 문화인프라 개선 및 확충	예술창작·발표·교육 환경 개선 및 확충	문화 사업팀
		도서관 시설 개선 및 확충	도서관 운영팀
	2-2 지역특화문화 재생 및 활성화	신길~여의 청소년문화벨트 조성	문화 사업팀
		양평~당산 문화특화거리와 광장 조성	문화 사업팀
		대림~도림 아시아 예술마을 추진	문화 사업팀
	2-3 도서관 자원 공유시스템 개발 및 확대	문래~영등포 문화특구사업 추진	문화 사업팀
		상호대차 및 U-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팀
	북큐레이션 확대	도서관 운영팀	
3. 문화 시민력 향상	3-1 시민예술 활성화	시민예술단 창단 및 운영	문화 사업팀
		영등포예술학교·영등포시민학교 운영	문화 사업팀
		마을기록학교 운영	도서관 운영팀
		생활문화예술주체 발굴과 지원	문화 사업팀
		영등포 공공예술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문화 사업팀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실행사업	부서
	3-2 인문·문화 활성화	인문·문화서비스 확대	도서관 운영팀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강화	도서관 운영팀
		소통·토론형 독서활동 강화	도서관 운영팀
		도서관 아웃리치 확대	도서관 운영팀
		영등포 북페스티벌	도서관 운영팀
4. 융·복합 문화창조	4-1 대표브랜드 사업 개발	영등포여의도봄꽃축제	문화 사업팀
		영등포도큐멘타(트라인날레, 빅텐트)	문화 사업팀
		수변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문화 사업팀
		기술·인문·예술 융복합 사업 개발 및 지원	문화 사업팀
	4-2 영등포아트홀 브랜드 강화	상주 문화예술 단체 운영	문화 사업팀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 사업팀
5.지역문화 연구·기록화	5-1 문화·예술·인문 자원 조사	구민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단체(인) 활동 실태조사	문화 사업팀
		도시자산/미래자산 조사 및 발굴	문화 사업팀
	5-2 문화예술자원종합DB 구축	(온라인)문화자원/실태조사 DB구축	문화 사업팀
		(오프라인) 영등포 리키비움 설립 및 운영	문화 사업팀
	5-3 지역공동체 기억보존·공유·확산	지역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도서관 운영팀
		지역자원 탐방 및 기록	도서관 운영팀
6.지속가능 혁신경영	6-1 정책대응형 조직 경영	대내외 협력 지향 조직 개편	총무팀
		대내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총무팀
	6-2 학습문화 정착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PT 등)	총무팀
	6-3 자원 다각화	외부 자원 확보(공공재원, 기업후원)	문화 사업팀
		자체수익사업 증대(축제, 공연 수익 등)	문화 사업팀

Ⅲ. 영등포 문화·관광 기초조사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방향

1. 영등포 문화·관광 관계자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2. 영등포 문화·관광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종합분석

Ⅲ. 영등포 문화·관광 기초조사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방향

1. 영등포 문화·관광 관계자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1.1. FGI의 개요

(1) FGI 구성 및 목적

- 영등포 문화·관광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진행
- 영등포 문화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영등포의 정체성 파악 및 분석

(2) 진행 방법

- 총 4회 진행, 회차별 주제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
- 회차별 주제
 - 영등포 문화환경 일반현황 분석 및 특징
 -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과 주요 사업 분석
 - 영등포 문화·관광 실태조사(설문조사) 분석 결과(초안)
 - 영등포 중장기 문화·정책(안)

(3) 대상 및 진행 상황

회차	인터뷰이	일시	장소	진행
1	영등포 지역 거점 주체 활동가 4인	2019.11.27.(수) 14:00~16:00	영등포 문화재단	김재상
2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이해관계자 5인	2019.12.03.(화) 10:30~12:30		최준영
3	영등포 문화·관광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 및 지역 주민 4인	2019.12.03.(화) 14:00~16:00		성연주
4	문화정책 전문가 4인	2019.12.03.(화) 17:00~19:00		최준영

1.2. FGI 주요 내용 정리

(1) 영등포 문화환경 일반현황 분석 및 특징 (1회차)

- 영등포구 권역별 분류의 적절성 : 권역 분류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음
 - 특정동이 권역의 대표성을 띄는 것 같은 느낌
 - 동네 명칭으로 권역을 정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
 - 그러나 다른 동네가 소외될 여지가 있고 다른 동네의 내용을 담기 어려움
- 특징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
 - 예시 : 양평2동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 권역별 장점을 내세워 구분하는 것이 적절
 - 영등포동과 도림동을 지나는 철도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위와 아래로 나뉨
- 동별 현황 및 이슈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홍대, 합정으로 소비층 이동 ■ 지하철역 조성 and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대값 상승 중 ■ 양평2동의 경우 공장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선유도 공원이 조성되며 인구 증가 중 ■ 예술가나 1인 창업자에 의한 소규모 대안 공간과 카페거리가 조성 ⇒ 예술가들과의 접점을 위한 사업/정책 개발이 필요 ■ 마켓, 축제 등에 대한 정책과 지원 필요(문래동 일대는 정책은 없고 지원만 존재) ■ 문래동 일대-기초예술, 선유도 일대-생활문화 공예가 특색이 나타남

여의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문화활동을 해소하고 있음 ■ 주민들의 필요보다 공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됨 ■ 제도화된 공적자금이 주민의 필요를 해결 ■ 클래식 전문 공연장 분포

신길동, 대림동

- 신길동은 주거 중심지이며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그에 따라 지대 상승)
- 신길 뉴타운으로 인해 대림으로 중국 동포가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구 이동에서 어떤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임
- 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주민을 위한 자율적인 공공 공간이 부족한 상태임
- 문화예술의 안정적 활동을 유지하며 주민들과 관계를 맺기에 어려움이 있음
- 관광 형태로 시장을 방문하는 경우 문화적 경험의 중심지는 대림동이며, 신길동은 재개발에 의해 민간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태임
-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특징 종합

- 영등포구는 지역을 담보로 한 지역문화의 특성이 생성되는 중(동마다의 특색이 강점)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이 새로운 인구 구성의 축을 형성
 -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고 현대의 문화 조성 필요(이주민과 관계 형성 중요)
 - 그에 맞는 문화시설과 이주민 청소년과 아이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별이라는 구분과 성급한 범주화에 대한 경계

-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등을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단순화
-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특별함이라는 명분하에 “별개의 것”으로 치부
- 가시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냈지만 이와 같은 성급한 범주화로 인해 사회에 포용되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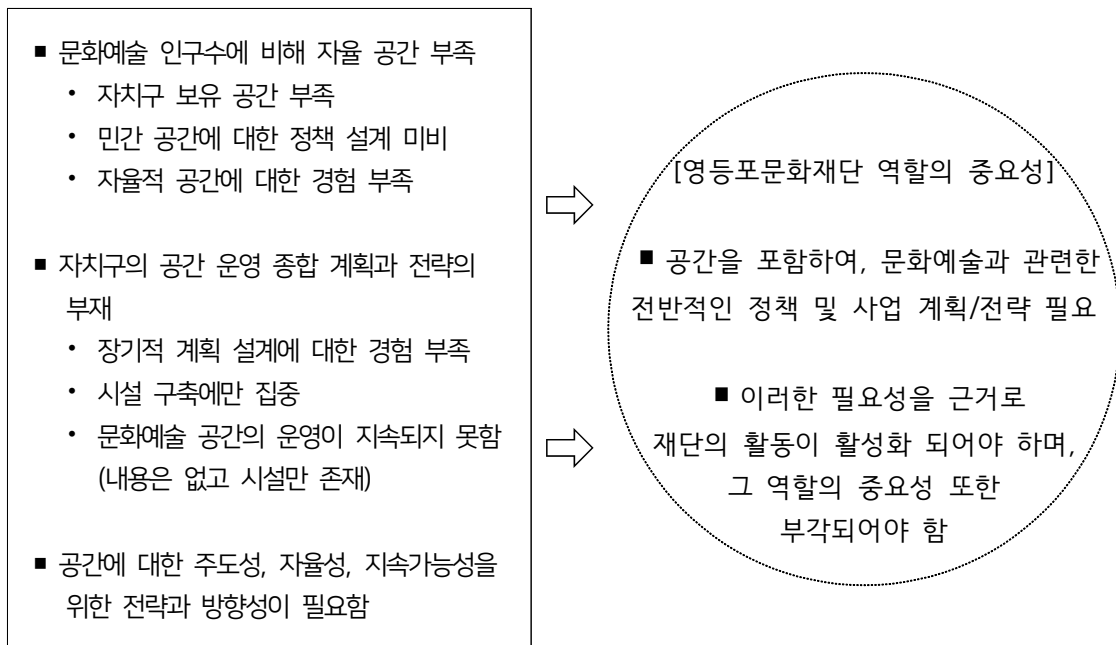
※ 관용과 포용은 공동체와 도시 발전에 핵심이며,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의 원천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2019)_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 영등포 내 관계망을 위해 1인 가구 거점이나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민간 네트워크 조직과 협력을 통해 주체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문화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

- 지역 민간 협의체 관련 현안
 - 현재까지는 개별적 단위의 사업이 협의체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 중
 - 문래마을예술인회의는 지역의 주체로서, 문래동의 예술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자율 네트워크로 활동 중
 - 창작촌의 특수성과 예술가라는 특수한 계층의 존재를 자의적 판단으로 지역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함 : 작가들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특수해서 힘들 수 있으며, 영등포구는 문화적 자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보임
 - 자율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이를 풀어내며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함 : 주민을 규정적으로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 높음

- 영등포의 문화예술 발전 저해요인(공간 중심으로)



(2)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과 주요 사업 분석 (2회차)

■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의 주요 특징

- 공유참여협력의 관계로 구정을 풀어나가는 소통의 탁트임
 - 구정 운영의 중점 사안은 '협치'(ex. 영등포 1번가 등 운영)
-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사업을 펼쳐갈 계획
- 이슈별 정책 및 사업 과제
 - 보행친화거리, 수변자원 활용 방안, 타임스퀘어 광장 활용(안), 영등포 여의 고가 시민광장화 방안, 양평동과 안양천변 지상 공원화, 서부간선 도로 지하화, 도서관 건립 등

문화도시에 대한 관점	잠재력 발현을 위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하는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측면의 잠재력 • 문화자원 측면의 잠재력 • 자원환경 측면의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의 문화 환경은 무엇인가 ■ 영등포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 문화인력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계획과 영등포구의 계획 간의 격차를 줄이고 결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구청장 임기와 관계없는 핵심적인 문화·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관리부서 간 협력 중요) • 다문화, 역사, 사람 등과 같이 문화자원은 많지만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영등포 거버넌스 주체 현황

- 문화영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비전을 세우고 구정에서 실행
- 구 현안들에 대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시민 주체 필요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영등포구 문화기반 자유포럼. '19.3 출범)
 - 시초는 문래동을 기반으로 사람-공간-관계 중심으로 연결된 체계
 - 현재, 영등포의 인적 인프라를 아우르는 장 형성을 시도 중
 - 정책 흐름에 대해 거버넌스로 참여(ex. 공공공간 운영에 대해 의제화 등)

- 현재 문래 거버넌스에서의 쟁점 (※문래=문래동 일대=문래창작촌)
 - 문래동은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재생 지역이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시계획으로서의 도시재생과 + 문화적 도시재생으로서의 문화예술팀과, 영등포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거버넌스 작동
 - 소공인들의 정착과 지역의 산업 활성화로 문화적 특색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견 존재
 - 오히려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적 영역을 풀어낼 수 있다는 의견 존재

- 문화·예술·관광 쟁점
 - 문래동(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활성화
 - 영등포아트홀과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랩) 등을 포함한 문화정책

 - 도서관의 양적팽창(ex. 신길, 당산, 영등포역 등)
 - 교육 강조(문화와 교육 함께)
 - 미래교육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사업 진행
 - 주택 매입을 통해 마을도서관 추진하며, 청소년 독서실을 개방형 독서실이나 마을도서관으로 진행
 - 교육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의 공간으로 마을커뮤니티로 거점화
 - 중급 규모의 도서관은 권역별 단위 거점 공간으로, 대형 도서관은 영등포 역사문화자원 기록하는 공간으로 정리하는 공간으로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으로 접근하는 경향 강함
 -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마을이라는 전략으로, 영등포구에 존재하는 문화·역사·인물 등을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어떤 관광 전략으로 접근할지 고민이 필요
 - 지리적 강점이 있음에도 다양하게 만들기는 약함
 - 보유하고 있는 역사나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정책 마련

- 축제
 - 지역축제의 자기 주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대표축제를 문체부에서 정한 축제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여의도봄꽃축제 소재지는 영등포이나 장소의 사용 및 관리 권한은 서울시와 국회임에 따른 원활한 장소 활용 체계(활용근거) 마련 요구됨
 - 여의도봄꽃축제만의 특징이나 고유성 개발이 필요

- 문화적 도시재생
 - 영등포역, 문래대선제분은 문화재생 정책의 하나의 흐름임
 - 문래동 예술인의 거주 담론 비평이 활발하지 않음
 - 영등포역의 이미지 포착 : 서울 서남권의 관문으로 일일 15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나, 대부분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 존재
 - 문화적·관광적 고민 필요함

(3) 영등포 문화·관광 설문조사 분석 결과 (3회차)

■ 영등포의 다문화(문화다양성) 이미지에 대한 의견(대림동을 중심으로)

- 중국 동포 다수 밀집
 - 중국 비즈니스 특화지역 혹은 중국 정부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안
 - 중국 동포에게는 대림동이 한국을 경험하는 첫 지역인 경우가 많음
 - 영등포구 내에서 지역기반 산업이 가장 활발한 곳
 - 중국 식문화(음식)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나 캠페인, 명소화 작업 필요

-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력
 - 일부 중국 동포에 의한 사건/사고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음
 - 영화 등과 같은 매체에서 중국 동포의 폭력을 시각화
 - 정통 중국 식문화 지역으로 소개되는 등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중

- 원주민과 중국 동포의 입장 차
 - 중국문화화 되는 구역이 확장·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원주민의 상실감과 박탈감 존재(더불어, 지역이 낙후 이미지로 변색되어 간다는 우려)
 - 중국 동포에게는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의 시작점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긍정적 영향 기대
 - 상대적으로 문화 생산과 향유가 소외된 지역
 - 마을 축제, 중국 동포-원주민이 연계된 문화예술 사업 등이 지역과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

■ 영등포 내 지역 간 격차

- 여의도동 개별성 강함
 - 영등포구 내 타 행정동과의 교류가 적음
 - 문화 소비 영역의 차이 발생(KBS홀, 영산아트홀 등 클래식 음악 중심)
 - 여의도동 내 문화시설은 대부분 민간 소유

-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지역적 편차
 - 영등포아트홀, 문래예술공장 등 대부분의 공공 문화시설이 문래, 당산에 위치
 - 영등포구 내에서 문화 소비 욕구를 해소하기보다 타 지역구로 소비층 이동(대학로, 예술의전당 등)
 - 신길동, 대림동은 문화시설이 부족함

- 신길동 재개발 사업에 의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예상

- 영등포 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의견
 - 마을 축제 정체성 구축 필요
 - 산발적으로 마을 축제가 진행 중
 - 동(마을)에 대한 특색이나 정체성은 모호함

(4) 영등포 중장기 문화정책(안) (4회차)

- 연구 목적과 범위의 재조정 필요
 -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병행한 기초연구일 경우 첫 번째는 지역에 대한 리서치, 두 번째는 수요 조사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이 중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영등포의 문화 지도(mapping) 만들기 작업의 중요성
 - 지역의 문화 시설, 공간 파악 중요
 - 문화 지도 만들기 작업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도움
 - 참고 지역 춘천, 부천, 김해
 - 공간의 성격을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함

- 영등포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필요
 - 문래동으로 유입되는 예술가들의 경로, 목적, 성격 등
 -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입되는지 등의 질문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날 수 있음
 - 지역 현장에 영향을 끼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분석 및 조사 필요
 -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등포구 문화·관광 정책 혹은 문화도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단순 소득 수준을 넘어 편차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필요
 - 문래동 이후 새로운 문화거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평동 일대를 예술가들이 거점으로 삼는 이유 파악

- 이미 존재 하고 있는 문화(자원) 및 역사 재조명
 -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자원)와 예술가들 혹은 주민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 이를 위해서도 지역의 문화자원 지도 만들기는 사례를 체계화 하는데 도움
 - 과거 영등포구의 구획의 범위,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 등 현재와의 다른 지점을 발견하고 변화된 역사를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을 발굴
 - '하자센터'와 같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고민 필요

-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방식과 방향성
 - 영등포구 주요 이슈 선정
 - 집중할 수 있는 소수 이슈를 선정 ⇒ 관련 자료 집중 조사 및 분석
 - 향후 5년 동안 영등포구의 예술가 혹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구상
 - 서울 안에서 지역을 만나는 곳(inter-local)
 - 지리적 특이성에 대한 영등포구 브랜딩 고민

2. 영등포 문화·관광 설문조사 분석 결과

2.1.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배경

- 영등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운영 중이며, 본 조사의 분석 결과를 서울시 평균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활용도가 다양함
-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는 과거에 사례가 없었으나, 영등포구는 여의도, 문래 등 이미 전국 단위에서 의미 있는 문화 거점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 자원과 거점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중장기 정책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조사의 주요 결과는 영등포구 문화·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어젠다 도출은 물론 우선순위 배정과 사업 내용 기획에 활용

(2) 조사방법

- 자유롭게 공유 가능한 네이버오피스 폼(form)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시행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주민자치회 등 영등포구에 대한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링크 배포
- 영등포구에서 진행한 '구민의제발굴단' 행사에서 오프라인 설문 배포 및 수집

(3) 분석방법

- 통계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영등포구 내 권역별 차이를 분석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018> 결과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8>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영등포구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
- 지역의 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과 현황을 결과분석에 활용

(4)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19년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구민 및 영등포구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
표본추출	영등포공유원탁회의, 주민자치회 등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링크 배포 및 오프라인 설문 배포
표본규모	200명
조사방법	web 및 오프라인 설문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수집기간	2019년 11월 ~ 12월. 1개월 진행

(5) 조사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 관람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 문화예술 행사 장르별 관람 횟수 - 관람한 행사에 대한 만족도 -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중요 기준 -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하는 데 어려운 요인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및 모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및 모임 장르별 참여 경험 - 동호회 활동 공간 - 동호회 및 모임 참여의 중요 기준 - 동호회 및 모임 참여하는 데 어려운 요인
영등포구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의 대표적 도시 이미지 - 영등포구의 방문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문화적 장소 - 영등포구 도시 이미지 키워드 - 최근 1년 이내 영등포구 내 문화예술 행사 참여 경험
영등포구 문화·관광 정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 정도 - 영등포문화재단 인지도 - 영등포문화재단 주최 문화사업의 선호도 - 영등포문화재단 <모두의 문화도시 영등포> 비전 의제별 필요도
기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 동, 가구원 수

(6) 응답자 분포

구분	내용	사례수	비율(%)
전체		200	100.0
성별	여성	145	72.8
	남성	55	27.2
연령	20대	17	8.5
	30대	47	23.6
	40대	76	38.1
	50대	35	17.6
	60대	24	12.0
	무응답	1	0.7
	거주/활동 기간	1년 미만	20
2-5년		50	25.1
6-10년		34	17.0
11-20년		59	29.6
21년 이상		36	18.0
무응답		1	0.7
거주지역	여의동	6	3.0
	당산1동	13	6.5
	당산2동	11	0.5
	문래동	21	10.5
	양평1동	28	14.0
	양평2동	38	19.1
	영등포동	7	3.5
	영등포본동	16	8.0
	도림동	3	1.5
	신길1동	10	5.0
	신길3동	1	0.5
	신길4동	5	2.5
	신길5동	6	3.0
	신길6동	5	2.5
	신길7동	4	2.0
	대림1동	8	4.0
	대림2동	10	5.0
	대림3동	7	3.5
	무응답	1	0.7
	가구원 수	1인	37
2인		38	19.1
3인		28	14.0
4인		76	38.2
5인 이상		20	10.0
무응답		1	0.7

- 성별을 보면, 여성 응답자 비율은 72.8%로 남성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음
- 연령대는 40대 응답자 비율이 38.1%로 가장 많은데 영등포구 40대 구민 비율이 약 18%인 것을 고려하면, 본 설문은 응답자는 영등포구 구민 전체보다는 30-40대에 편중성된 것으로 나타남
- 거주 및 활동 기간을 보면, 11-20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5.1%로 2순위임. 거주 및 활동 기간이 긴 응답자가 많으므로 영등포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응답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영등포구의 18개 동 중 양평동(1, 2동) 응답자가 많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활동이 활발한 문래동의 응답 비율도 높음
-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38.2%로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집단의 응답자가 많다고 보임
- 따라서 본 설문은 결과는 영등포구민의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나 의견을 측정하였다고 보기보다, 3-40대의 가족을 형성한 여성 중 지역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2.2. 조사결과

(1) 최근 1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및 만족도

	문학	미술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영화
평균횟수(회)	1.6	1.9	1.8	1.8	0.6	3.4
만족도(7점 척도)	5.0	5.2	5.4	5.6	4.8	5.5
응답자(수)	104	118	109	124	81	135
당산권(횟수)	1.5	1.6	1.9	2.1	0.7	3.1
문래권(횟수)	2.3	2.7	2.0	1.7	0.7	3.4
영등포권(횟수)	1.5	1.9	1.8	2.3	0.8	2.8
여의도권(횟수)	2.8	1.5	2.5	2.0	0.3	2.5
신길대림권(횟수)	1.3	1.6	1.5	1.5	0.3	4.0

구 분	문학	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영화
서울	0.05	0.4	0.1	0.5	4.6
전국	0.2	0.3	0.4	0.5	4.0

*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2018), 문화향수실태조사(2018)

- 문학, 미술, 음악, 공연예술, 영화의 5개 장르로 구분하여 장르별 최근 1년 관람 경험을 질문하였음. <문화향수실태조사>와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는 공연예술을 연극, 뮤지컬, 무용 등으로 세분화하고, 음악의 경우에도 서양음악, 대중음악으로 세분화 하지만 설문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이 장르들을 5개 장르로 압축함. 따라서 여기서 '음악'은 넓은 의미의 서양음악, 전통음악, 대중음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공연예술'은 연극, 뮤지컬, 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함
- 또한 영등포구 내 생활권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을 구분함
 - 당산권 : 당산2동, 양평2동
 - 영등포권: 당산1동, 양평1동, 영등포동, 문래동
 - 여의도권 : 여의동
 - 신길권 : 영등포본동, 도림동, 신길1~7동
 - 대림권 : 대림1-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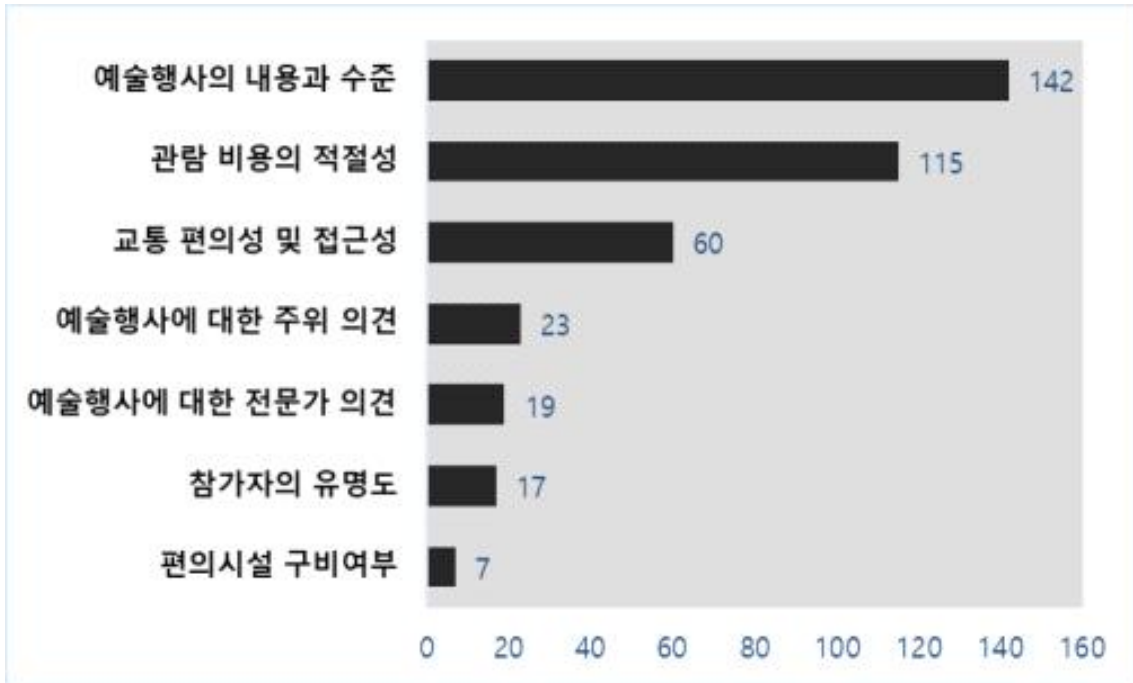
- 관람 평균횟수는 영화 (3.4회) > 시각예술 (2회) = 음악 (2회) > 공연예술 (1.8회) = 문학 (1.8회)의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서울 및 전국 트렌드와 비교하면, 영화 장르의 경우 서울 평균 4.6회로 영등포구 평균 3.4회 대비 더 관람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4개 장르의 경우 모두 영등포구 평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는데, 실제로 영등포구가 서울 평균 대비 문화예술 관람이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관람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전국 평균의 경우에도 서울과 유사함
- 만족도는 영화 > 공연예술 > 음악 > 시각예술 > 문학의 순으로, 대중적인 장르의 만족도가 더 높음. 따라서 문화예술 장르의 대중화와 만족도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영등포 내 생활권별 문화예술 향유 정도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모든 장르에서 문화예술 관람 수준이 높은 지역은 '여의도권'임. 특히 문학 3.5회, 음악 2.5회 등으로 순수예술 장르의 관람이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영화 장르는 2.7회로 서울/전국 평균보다 낮음
 - '영등포권'은 시각예술 공간과 행사가 많은 문래동이 있는 지역으로, '시각예술' 장르 관람이 2.3회로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음. 또한 다른 장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람이 활발함
 - 다음으로 철길 아래에 위치한 '신길권'은 모든 장르의 관람 정도가 가장 낮음. 일반적으로는 신길동과 대림동을 동일하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대림동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 공공 시설이 있는 데 반해 신길동은 공공 시설 및 인프라가 더 부족하며 철길 아래에서 철길 위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영등포구 내 권역 전체에서 가장 문화예술 관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철길 아래에 위치한 '신길권'과 '대림권'의 공통점은 영화 장르의 관람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인데,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순수예술 장르의 접근성이 낮아 일종의 보상 작용으로 영화 장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시사점]

- 신길권과 대림권은 영화 외 장르의 관람 정도가 현재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순수 예술 장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해당 지역에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립, 추진해야 함
- 예를 들어, 신길권에 설립 예정인 '특성화도서관'의 경우에도 성북의 '천장산우회극장' 처럼 도서관 내 공연시설을 운영하여 신길권의 부족한 공연시설을 보강할 수 있음
- 또한 신길권과 대림권은 주민센터나 관련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2)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개 선택)

(기준: 명)



- 본 질문은 비교분석을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 답변을 활용함
- '예술행사의 내용과 수준'이 1위(142명), '관람 비용의 적절성'이 2위(11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접근성이나 편의성보다 콘텐츠의 수준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문화예술 관람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모두 콘텐츠의 수준이 관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오며(아래 표 참조), 이를 통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시선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3순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경우 3위는 '참가자의 유명도'이며, 본 설문 결과 3위는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으로 분석됨
- 이를 해석해보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할 때는 주거지에서 멀거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행사인지의 여부(=콘텐츠의 내용)가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이지만, 자치구처럼 특정 지역사회로 한정해서 보면 집에서 가깝게,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가 '참가자의 유명도' 보다 더 중요한 요인임
- 영등포구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문래, 당산권 거주자의 경우 철길 아래 지역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신길, 대림권 거주자의 경우에도 철길 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이야기하였음

[시사점]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과 수준만큼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
- 따라서 영등포구 내 공연/전시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좋은 시설을 선택하거나, 또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 때는 주변 주차시설 확보, 접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공연 시작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관람 비용의 적절성’은 모든 조사에서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중요한 기준으로 나오지만 실제 공공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는 이미 무료로 제공됨. 따라서 구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만들어진 예술행사의 내용을 더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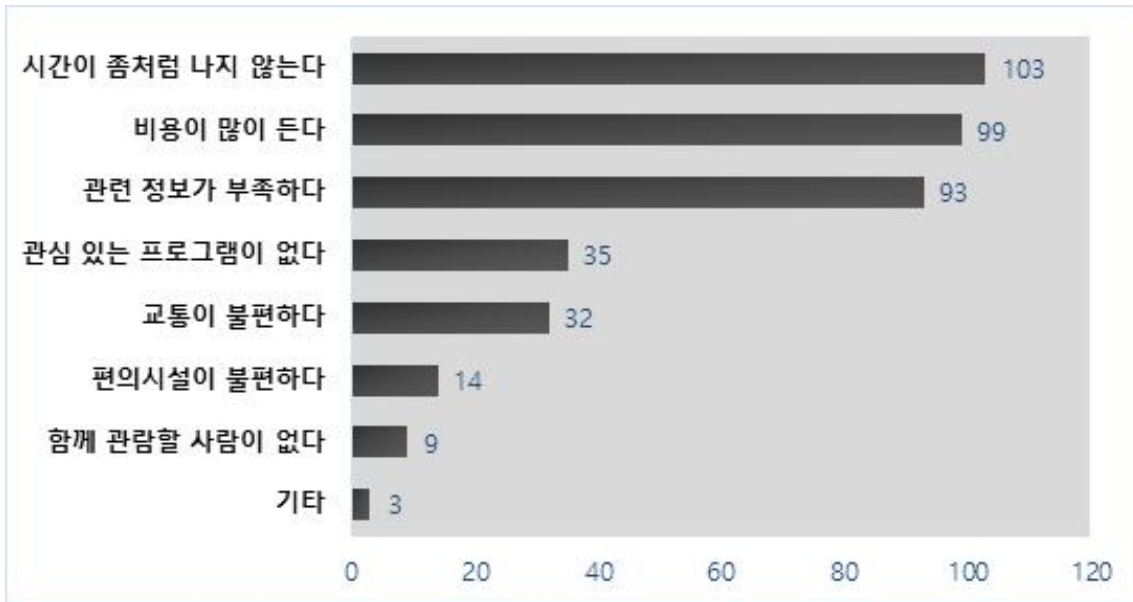
<참고>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문화예술행사 관람 기준

구 분	%
문화예술 행사의 내용 및 수준	29.7
관람 비용의 적절성	24.9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12.9
교통의 편의성	11.0
접근성	8.9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4.8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2.9
편의시설 구비여부	2.9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1.9

* 문화향수실태조사(2018)

(3)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가장 어려운 요인 (2개 선택)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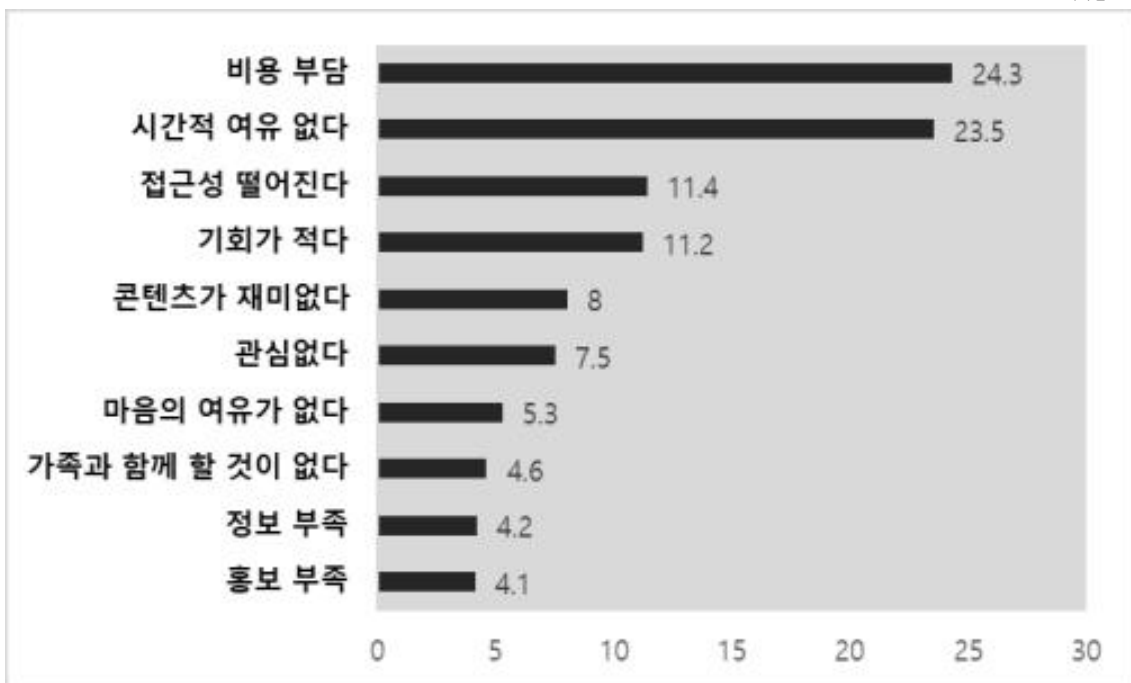
-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가 103명, '비용이 많이 든다'를 선택한 사람이 99명,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93명으로 위의 촉진 요인과 함께 분석해보면 비용이 촉진과 방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별됨
- 4위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5위 '교통이 불편하다', 6위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등의 의견은 1-3위에 비해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음
- '2018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위 '비용부담', 2위 '시간적 여유 없다'에 이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위를 차지함
- 반면 본 조사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위와의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함. 실제 영등포구민과의 인터뷰에서도 구내에 다양한 공공 행사가 열리지만 하나의 통합된 창구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최근 과천시 등에서는 공공 행사 정보를 통합,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일괄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주제나 주목할 만한 행사를 선택적으로 홍보하는 큐레이션(curation) 방식을 도입한 뉴스레터 발송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시사점]

- 시간의 부족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 행사가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생활권 안에서 열리는 행사에 더 쉽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예술의전당 오전 11시 브런치 콘서트'처럼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위해 시간대를 낮으로 조정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참고>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018 - 문화예술 관람 불만족 이유

(기준: %)



*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2018)

(4)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 참여 경험

최근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및 모임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중 해당되는 장르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장르	수(명)	비율(%)
문학(독서 포함)	57	28.5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50	25.0
음악(서양음악, 국악, 대중음악)	56	28.0
영화(비디오 포함)	38	19.0
연극/뮤지컬	33	16.5
무용	11	5.5
모든 장르 참여경험 없음	53	26.5

동호회 및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동호회 활동 공간을 선택해주세요. (해당 되는 것 모두 선택)		
공간	수(명)	비율(%)
지역사회	102	51.0
온라인	32	16.0
기타	22	11.0
학교	22	11.0
직장	16	8.0

-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장르는 '문학'으로, 대중적으로 모임을 시작하기에 '책'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매체임을 확인함. 문학이 '독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각예술 작가들이 '시각예술 트렌드'에 대한 주제로 독서 모임을 한다면 주제는 미술이어도 문학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73.5%로 전국 또는 서울시민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임. 서울의 경우 9.7%(오프라인 기준), 전국의 경우 9.0% 정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함

(참고) 전국 및 서울 문화예술 참여 활동자 비율

(기준: %)

구 분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
서울	온라인	9.2	5.3	3.7
	오프라인	9.7	5.6	4.9
전 국		9.0	11.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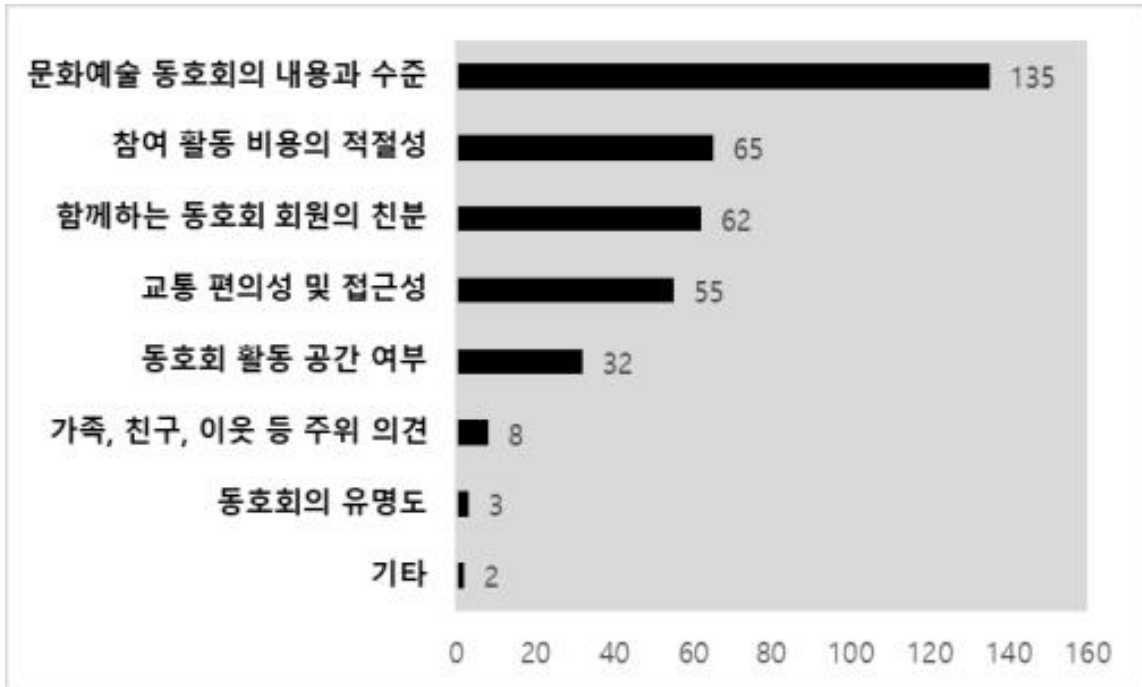
-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는 '지역사회'가 1위이며, '온라인'이 2위임
- 4위를 한 '학교'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들은 초·중·고대를 의미한다기보다 자녀가 학생인 학부모들끼리 구성한 모임이나,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시사점]

- 영등포구민들의 동호회 및 모임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모임의 종류와 수를 더 확대하고 영등포구 내 여러 지역에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동호회 및 모임을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개되고 연결되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회, 주민자치회 등 이미 마련된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모임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인지에 따라 모임의 목적과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동호회 활동 공간 중 2위가 '온라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이 '네이버카페'와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동호회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인지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5)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 참여하는 데 중요한 기준 (2개 선택)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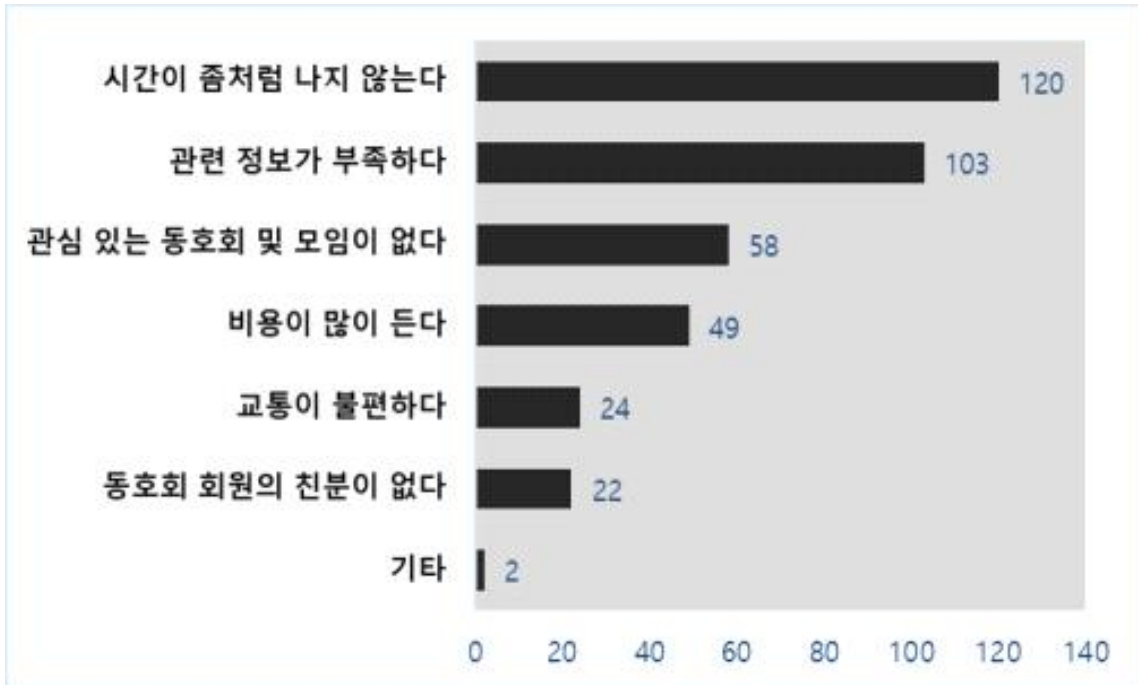
-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 대한 의견과 유사하게 '동호회의 내용과 수준'이 1순위, '참여 활동 비용의 적절성'을 2순위로 선택함
- '함께하는 회원의 친분'이 3순위이며 실제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지인의 추천'을 통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있어서 지역사회 내 동호회 및 모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

[시사점]

- '문화예술 동호회의 내용과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영등포구민들의 취향과 선호에 맞는 동호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외에 여러 지원책을 고민해볼 수 있음: 공간 지원, 강사/멘토 지원, 문화생활비 지원 등
- 또한 재단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활용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모임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플랫폼을 개설할 수 있음
- 동호회, 모임의 특성상 이미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끼리의 유대감과 결속감이 크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성 기회(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6)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 참여하는 데 어려운 요인 (2개 선택)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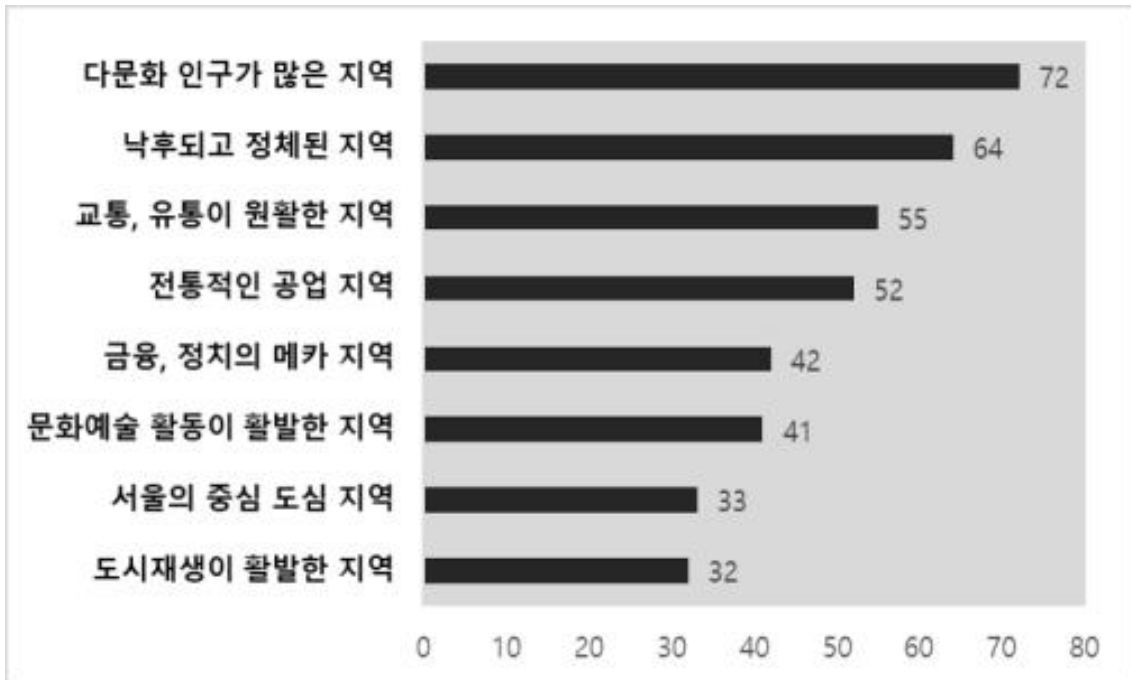
-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순위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에 참여하는 데에도 모두 '여가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지적됨
- 다음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순위임. 대부분의 동호회 및 모임 가입이 주변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시사점]

- 동호회, 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 별도의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므로, 세대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른 특화형 동호회, 모임의 개설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3-40대 육아맘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가족합창단, 미술놀이 등), 3-60대 직장인에게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동호회나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동호회, 1-20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동호회 및 모임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7)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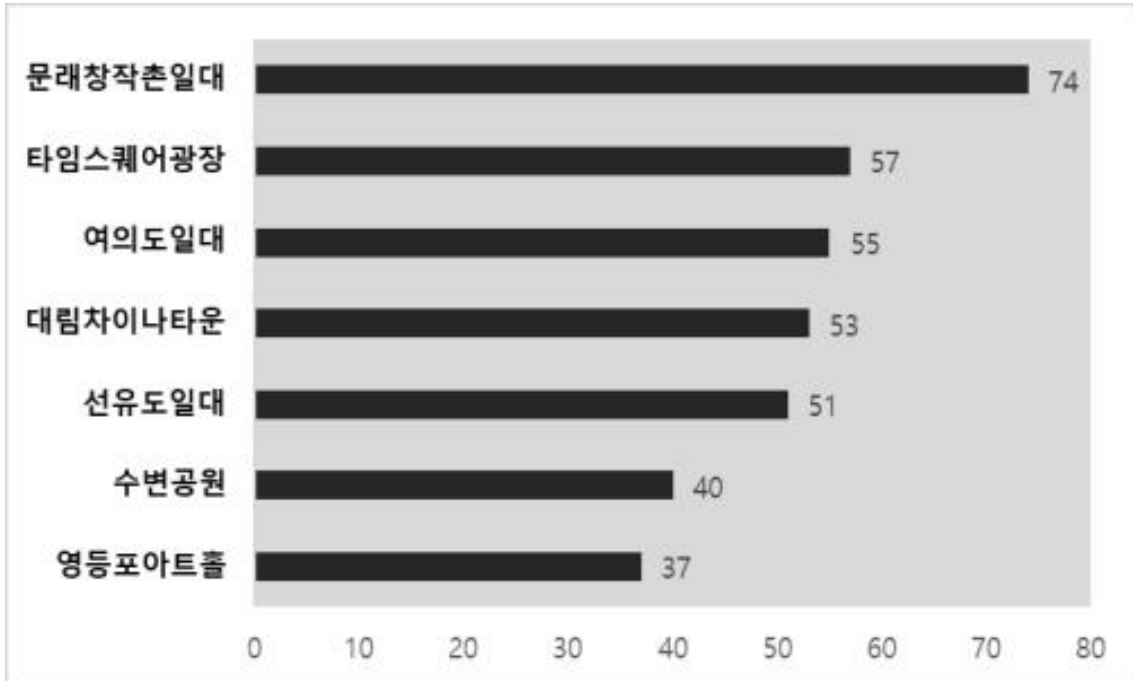
(기준: 명)



-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이란 의견이 1순위로 가장 많음
- 공업, 도심, 교통, 유통 등의 키워드가 1960-70년대 서울의 경제성장을 이끈 영등포구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 키워드임.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 동포를 비롯한 여러 외국인의 영등포구 이주로 인해 현재 도시 이미지가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됨 (인종혐오, 지역혐오가 예전에 비해 낮아짐)
- 반면 최근 서울시가 영등포구를 금융권 직장인이 많은 서남권 도심으로 선포하여 향후 지역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하였지만, 정작 이런 정책 의제가 지역주민에게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서울의 중심 도심 지역'이란 도시 이미지는 전체 8개 중 7위에 그침
- 또한 과거 60-70년대 서울의 모습이 많이 간직된(공업사, 전통시장 등) 영등포구의 특성상 '낙후되고 정체된 지역'이란 도시 이미지가 2위를 차지함. 최근 대선제분,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경인로 도시재생 등 여러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런 사업들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게 될 4-5년 후에 도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가 관건임. 과거의 전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8) 영등포구의 방문객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문화적 장소 (2개 선택)

(기준: 명)



- '문래창작촌 일대'가 1위, '타임스퀘어광장'이 2위, '여의도일대'가 3위, '대림차이나타운'이 4위를 함
- '문래창작촌 일대'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영등포구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다는 증거임. 2위와 3위 공간이 영등포구 내에서 가장 도시적이고 세련된 공간이라면 이보다는 예술적 분위기와 독특한 특색이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보여짐. 따라서 향후 재단에서도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문래창작촌의 사례처럼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실험이 결합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문화유산, 관광 스팟이 많지는 않음)
- 앞의 질문에서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였는데, '대림차이나타운'이 4위를 한 것은 반드시 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로 영등포구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대림차이나타운'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 방송에 비취지는 방식에 많이 영향을 받으며 최근 외식 프로그램에서 '대림차이나타운'의 시장이나 로컬 맛집을 방송에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고 응답함. 따라서 '대림차이나타운'이 가진 가치와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9) 영등포구의 도시 이미지 : 키워드

(기준: 점)



- 가장 점수가 높은 키워드는 '잠재력 있는(5.4점)'이라는 키워드임. 문화정책 전문가 FGI 결과에서도 영등포구의 지리적 위치, 전통, 역사성, 지역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향후 영등포구는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음으로 '활기찬(4.8점)'이라는 키워드가 2위를 함. 영등포구는 전통적인 공업 지역으로 상당수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공장을 주변으로 발달한 공업사, 전통시장 등이 위치하여 상업지, 공업지, 거주지가 혼용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활기찬 느낌을 줌
- 3순위는 '문화적인(4.5점)'이라는 키워드인데, 영등포구의 오랜 역사성을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영등포구의 다양한 특성과 독특함이 전반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계획적이거나 풍요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이란 키워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영등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에 비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나 정책, 발전 계획이 구비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함

[시사점]

-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 보여주고 싶은 장소, 키워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음
- 영등포구민들은 전반적으로 영등포구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전통과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식,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영등포구의 정책이나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비계획적이고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세련되게 잘 정비된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고 생활권 내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문화활동(쇼핑, 외식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문래창작촌 일대, 선유도 일대 등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지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 따라서 영등포구 내 예술거점 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되 구민들이 보다 일상적인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10)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이용, 방문 경험이 있는 영등포구 내 문화예술 공간

공간	수(명)	비율(%)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127	63.5
문래창작촌 일대 문화공간 (공연장, 갤러리 등)	101	50.5
문래예술공장	67	33.5
영등포아트홀 (전시장)	59	29.5
선유도 일대 문화공간	55	27.5
영등포문화원	41	20.5
KBS홀	36	18.0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26	13.0

- 영등포아트홀(공연장, 전시장)의 방문 경험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래창작촌 일대 민간 문화공간 및 문래예술공장의 방문 경험이 높지만, 이는 응답자 중 문래동 거주/활동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해석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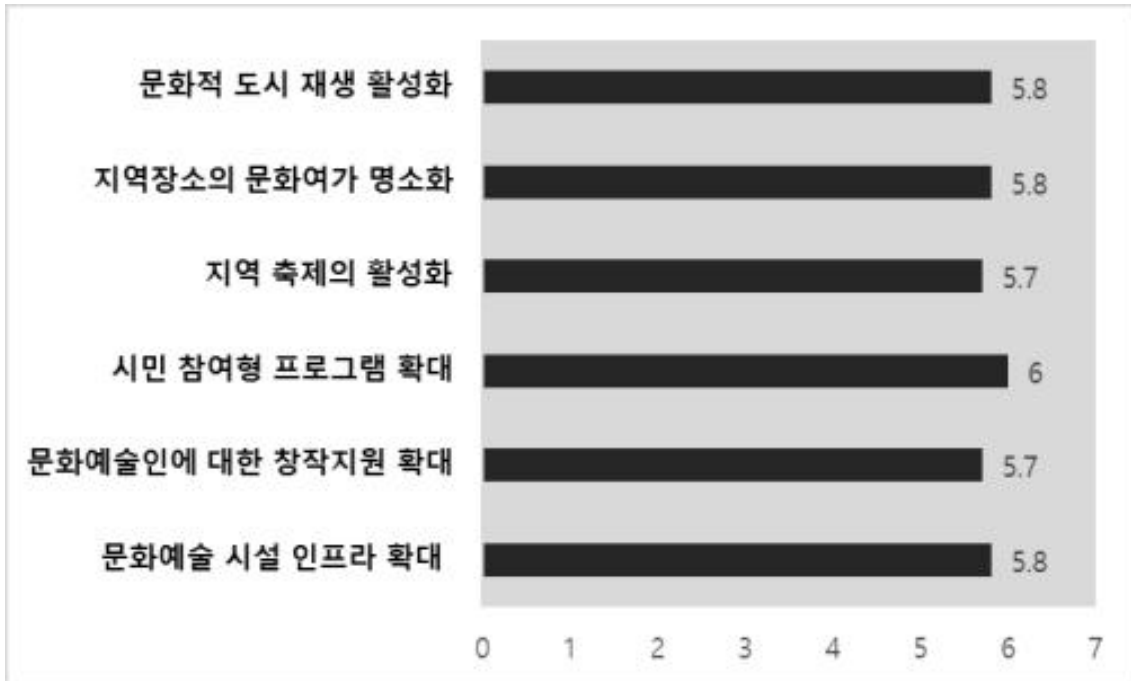
(11) 영등포구 내 문화예술 행사 관람/참여 경험 및 형태

최근 1년 이내에 '영등포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목	수(명)	비율(%)
6회 이상	33	16.6
3-5회	39	19.7
1-2회	103	52.0
전혀 없다	23	11.6
참여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셨습니다까?		
항목	수(명)	비율(%)
축제 참가	98	49.0
공연 관람	92	46.0
전시 관람	51	25.5
문화강좌 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	47	23.5
기타 행사 참가(포럼, 발표)	45	22.5

- 영등포구 내 문화예술 행사 참여 경험에 대해 8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 설문 응답자를 참여 경험이 많은 고관여자라고 분류할 수 있음
- '축제 관람'이 1위, '공연 관람'이 2위로 공연과 축제가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 행사임

(12)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사업의 필요 정도

(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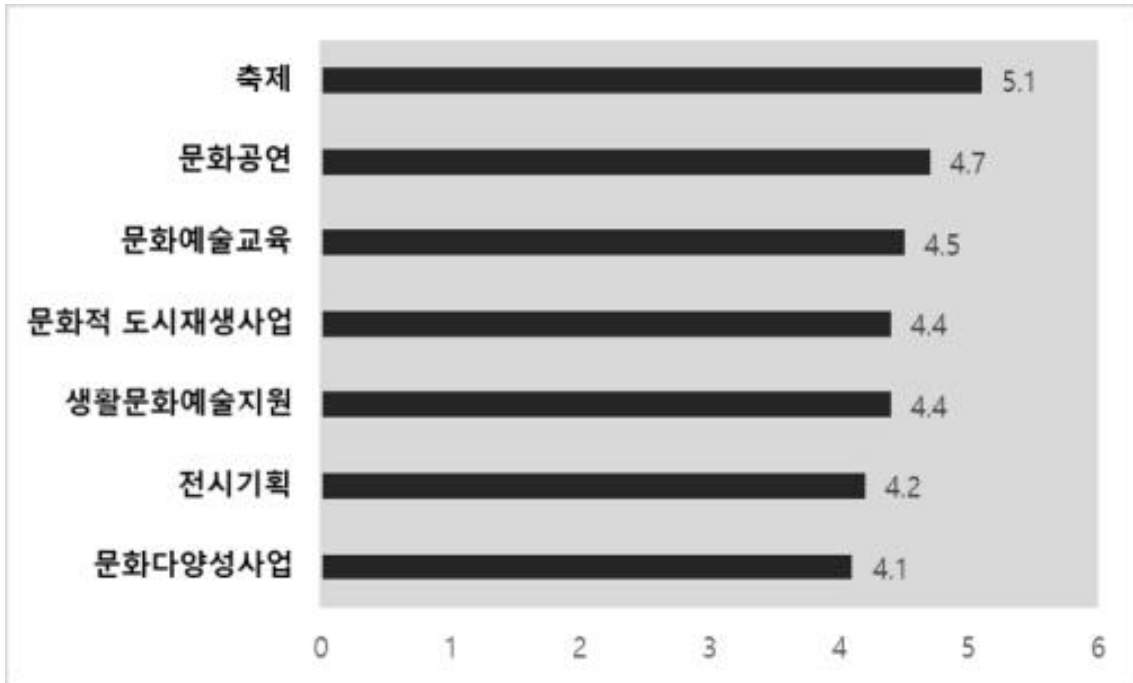
- 영등포구 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6개 항목에 대한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아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가 6.0점으로 1위를 하여 축제, 예술인을 직접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구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민들이 직접 체험,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13) 영등포문화재단 인지도 : 3.85점

-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구민들의 인지도는 3.85점으로 7점 만점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평균 정도임
- 영등포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재단의 활동이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4)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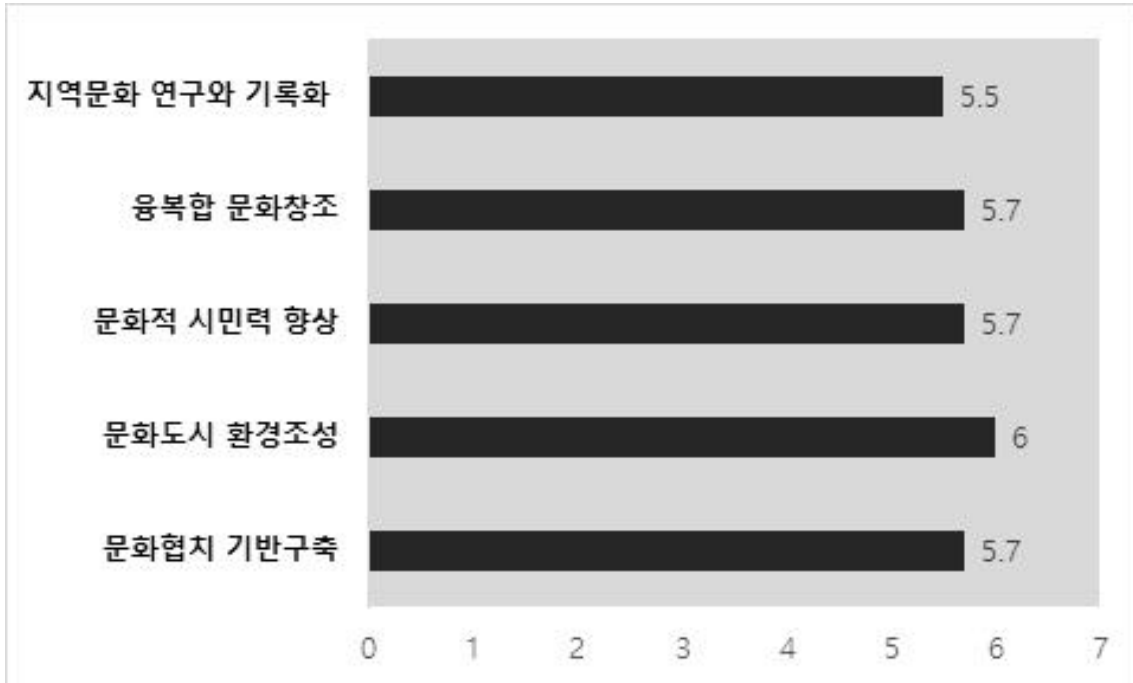
(기준: 점)



- '축제'가 5.1점으로 1위, '문화공연'이 4.7점으로 2위임. 전반적으로 문항 간 선호도의 차이가 크진 않음
-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도 '축제'가 1위였음
- 영등포구는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민간 주최) 등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2개 있고, 그 외에도 문래창작촌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으므로 영등포구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축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다음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다양성사업'이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나 키워드(차이나타운, 낙후된 도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이지만,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영등포구의 '다문화'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을 현재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조절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5) 영등포문화재단 <모두의 문화도시 영등포> 의제에 대한 필요도 의견

(기준: 점)



-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경 조성(문화도시 환경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실제 인터뷰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 공공에서 구축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문화 연구와 기록화'가 근소한 차이이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영등포구는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연구하고 기록할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의제에 대한 필요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시사점]

- 14번, 15번 문항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영등포구민은 '문화도시 환경조성', '축제'와 같이 전반적으로 영등포구의 문화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구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고 해당되는 행사와 이벤트를 가장 선호함
- 문화다양성 사업, 영등포학(지역학) 강화 등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꼭지들에 대해 구민들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구민들과 소통하고 알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항목의 편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 의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반대로, 모든 항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함

2.3. 소결

- 본 조사의 응답자는 영등포 거주 경험이 길고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40대 여성이 주류를 이루며,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영등포구민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고관여자'의 응답이라고 보아야 함
- 본 조사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참여가 활발하며, 철길 위 지역(여의도, 당산, 문래)과 철길 아래 지역(신길, 대림) 간 격차가 발견됨. 철길 위 지역은 문화예술 시설/인프라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철길 아래 지역보다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철길 아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설/인프라/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본 조사 결과 영등포구민은 영등포구 내 문화적 공간 중 문래창작촌 일대 문화 자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타임스퀘어, 여의도 일대와 같이 세련되고 정리된 문화적 공간이 더 확보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영등포구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이란 의견이 가장 많으며, 반면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사업이라거나 대림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음
- 영등포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비계획적이고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다양한 환경적 여건에 의해)설문조사 참여 및 결과 수치가 높지 않다는 한계 직면. 따라서 본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참고하여 영등포 문화자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조사(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음(후속 조사를 통해 정리 된 문화 정책/사업, 거버넌스 및 각종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영등포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음)

3. 영등포 문화·관광 환경 종합분석

3.1. 강점 및 특징

구분	내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특화된 정책 추진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동과 대림동 중심으로 이주민(중국 동포 중심) 다수 밀집 • 새로운 인구 구성으로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 ■ 교육문화 특화(도서관 건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곳마다 도서관 시설 존재 • 향후,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이 교육문화 특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차별화된 도서관 정책과 사업 수립에 대한 기대
거버넌스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공공위원탁회의, 문래예술인회의 등 특정 지역 혹은 영등포구 전체를 아우르는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가 작동 중 • “소통을 통한 협치” 중점 규정 운영(ex. 영등포 1번가 운영 등) ■ 다양한 민간 주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예술인 등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 존재 • 지역에서 거점화 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 내에서 정책 및 사업 계획/진행 중 • 양평동과 당산동 중심으로 예술인 인구 증가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샛강, 선유도, 밤섬, 안양천, 도림천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수변 생태 자원 풍부 • 안양천과 양평동 공원화 계획 등 향후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요인 ■ 생활권에 따른 뚜렷한 지역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영등포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의 특색 뚜렷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용이 • 지역별 특색에 따른 지역 브랜드 구축 가능

3.2. 필요 및 의견수렴

구분	내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역사, 사람 등 영등포구 내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문화정책 • 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 • 풍부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자체 임기 여부 관계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되는 정책 설계 필요 ■ 청소년 및 교육과 관련한 시설 간 연계 정책 필요 • 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문화 지원 시설 증가 • 청소년 및 교육/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별 협력 필요(교육 편차 해소) ■ 시민의 문화예술 생산성을 높이고 향유할 수 있는 장 마련
거버넌스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협의체의 확장성 • 현재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는 몇 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작동 • 영등포구 전역으로의 협의체 확장성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필요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에 집중 된 공공 문화시설 • 양평동과 당산동은 예술가 및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공간이 다수 분포 • 여의도동은 공공 문화시설보다 민간 소유의 문화/상업 시설이 집중 • 문래동과 영등포동에 공공 문화시설과 상업/관광 시설 집중 • 신길동과 대림동은 문화시설이 타 행정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 ■ 지역축제의 지역정체성 구축 및 제고 필요 • 산발적으로 마을 축제가 진행 중이긴 하나 특색이나 정체성이 모호함 • 봄꽃축제, 불꽃축제에 대한 영등포만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

3.3. 환경 종합분석 관련 정책적 방향

(1) 영등포 관련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전략 수립 필요성

- 영등포의 문화환경을 둘러싼 종합분석 결과, 영등포 문화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영등포는 서울 도심 내에 자연환경, 경제환경, 문화환경 등의 고유한 특성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
 - 영등포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로서 높은 다양성과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음
 - 영등포는 지역 내 권역별로 명확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이 구조화되어 있음
 - 영등포는 산업구조 재편,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확산 등 도시환경 자체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기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지역
 - 영등포는 최근 규정 혁신과 영등포문화재단의 재활성화 등을 계기로 문화 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동력이 증가하고 있음
 - 영등포는 영등포공유원탁회의, 문래예술창작촌 등을 거점으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와 관련된 협치(거버넌스) 구조가 축적되고 있음
- 영등포의 문화환경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공진화시키기 위한 '문화도시' 전략과 정책 수립 필요
 - 영등포의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전문적인 정책 사업화 필요
 - 문화적 관점에서 영등포의 다양성, 잠재력을 통섭적이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영등포 내의 지역별 특성화, 지역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전략과 계획 필요
- 위험사회에 대한 대안이자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영등포형 문화도시" 추진 필요
 - 기존 정책사업으로서의 문화도시 계획을 넘어 영등포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 추진

- 위험사회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 개개인과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이러한 과정을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협력하는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문화도시 모델” 추진

(2)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의 구성 요소

■ 영등포 문화도시의 기본 구성 요소

- 창조적 유산
- 동시대 사회변화에 대응
- 도시의 혁신을 위한 주체(가치시민) 형성

■ 창조적 유산

- 창조성을 축적한 도시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
- 영등포의 오랜 역사문화 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동시대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구민 삶의 연계

■ 동시대 사회변화에 대응

- 근대산업자본주의를 극복한 ‘삶-문화’의 가치 추구(사회적 경제, 공유사회, 마을민주주의, 협치 등)
- 근대적 도시 통치성의 규율을 극복하고, 배제-경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지향적 도시공동체

■ 혁신을 위한 주체(가치시민) 형성

- 창조적 도시경쟁력을 위한 '휴먼 자원'(Human Resources)의 형성과 확산
- 문화적 자원(Hardware+Contentsware+Humanware)의 혁신과 이를 통해 일상-삶의 행복으로 확장되는 뚜렷한 원칙, 원리, 원형을 보유

(3)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의 전제

■ 문화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필요

- 문화도시라는 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
- 문화도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다보니까 문화都市는 새로운 게 아니라 21세기 도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도시의 면모로 생각하고 있음
- 문화도시가 21세기 도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도시가 구체적인 성찰이 없이 문화도시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문화도시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할 뿐더러, 그것은 잠시 선언했다 사라지는 구호에 불과할 것
- 이 시점에서 문화도시가 영등포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 것인지, 영등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자 구성해야 할 핵심 정체성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
- 문화도시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 문화都市는 영등포가 추구하는 도시 정체성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도시의 발전 계획을 하나로 종합하는 통합적 모델인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
- 영등포가 문화도시를 선언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
-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확고한 시의 의지가 관철되어야 함
-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투자와 장기적인 정책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한, 문화 도시 영등포는 그야말로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문화도시 전략수립의 3가지 층위에 대한 전략 필요

- 첫 번째 층위는 지표적인 것으로 주로 도시의 정량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가령 주택보급, 교통차량확대, 미세먼지 줄이기, 보육원 확충, 박물관 미술관 확충 등이 지표적인 층위에 해당
- 두 번째는 도상적인 층위로 도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하는 시설이나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 말하자면 도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임 :

가령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서울 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버스 중앙차로제가 대표적인 사례. 도상적인 층위에서의 도시 전략은 단기간에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 번째는 상징적인 층위로서 도시의 철학과 이념 가치를 담는 것을 의미 : 도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임

층위	개념	전략
지표적인 층위 (level of index)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수와 이용률 등 정량적 지표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비교 통계를 위한 지리적 맵핑(mapping)과 균형발전 전략
도상적 층위 (level of icon)	문화도시의 유산들과 새로운 문화적 프로젝트를 시각적, 정서적으로 가시화	도시를 대표할 문화프로젝트 수립(인프라, MP 등)
상징적 층위 (level of symbol)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 이념, 철학	도시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정체성 수립 (비전을 위한 슬로건)

(4)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방향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

- 문화도시의 역사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동시대 문화자원들도 미래의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 영등포의 역사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들을 문화자원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 문화자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재생

- 영등포의 권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수단으로 문화 자원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문화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기획
- 영등포의 예술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

-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확산
 -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문화적 접근권, 문화적 참여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을 수립
 -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활성화, 예술인들의 복지권리 강화, 축제 참여활성화 등을 통해서 영등포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기획

- 창조적 문화예술 인적 자원의 양성
 - 영등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서 예술가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청년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IV.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기본수립을 위한 제언

1.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2. 영등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플랫폼 구축
3. 영등포 도서관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역학(영등포학) 생태계 만들기
 4. 영등포형 예술인복지 및 지역안전망 확보
 5. 영등포 권역별 지역특화문화 재생 및 활성화
 6. 후속 과제

IV.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기본수립을 위한 제언

1. 영등포 문화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1.1. 제언 배경

(1)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변화와 사회 환경

- 지역문화는 지구적으로 전면화된 위험사회와 삶의 불안정성 속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과 안전망 그리고 대안적 상상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문화적 창의성과 시민 주도의 협치에 기초한 문화도시는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전략이자 문화정책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흐름

(2) 지역문화정책의 핵심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확산

- “유럽, 아시아 등 세계의 나라에서는 문화로 도시를 성장 및 발전시키는 국제적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확산 중에 있음”,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지역거점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 동아시아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도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효과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효용 극대화 방안 구조 제안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 관련 사례

- 국외 : 유럽문화수도, 아랍문화수도, 아메리카문화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슬로시티, 시카고문화계획,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문화도시 외
- 국내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관광도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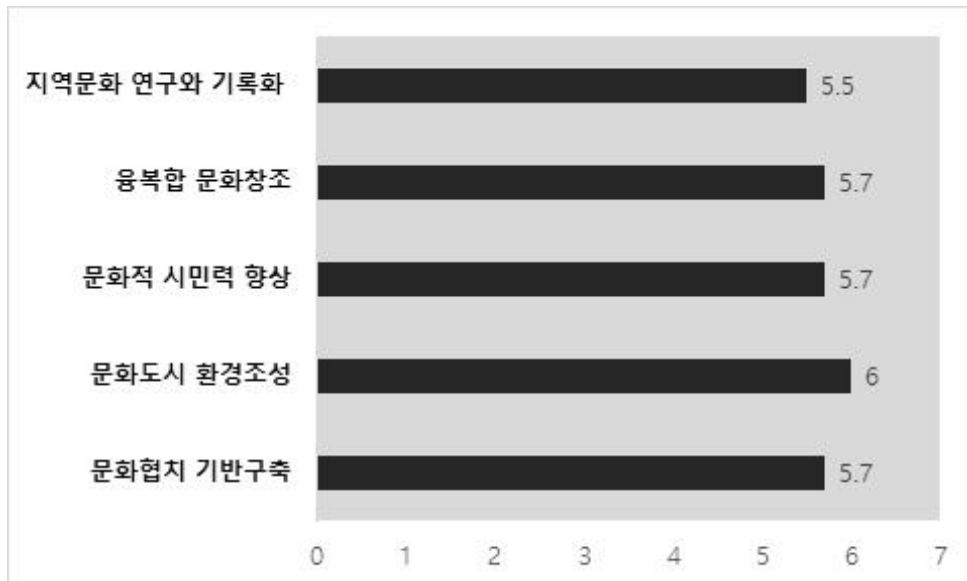
■ 문재인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주요 현황

-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 문화마을 신규조성 추진
- 지역문화기반시설 확대 조성
- 지역 특화 관광명소 집중 육성

(3) 영등포의 가치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문화도시 전략 필요

■ 영등포 도시구조와 문화환경 분석 결과에 대한 통합적 도시전략과 대안 필요

- 영등포 내의 “권역별 문화공간의 접근성, 문화수요 상이”에 따른 도시 연계와 통합 전략 필요
 - 당산, 여의도, 영등포, 신길, 대림 등 권역별로 명확한 도시문화 정체성의 차이 존재
 - “영등포 내 다양한 문화자원 발굴 필요”
- 영등포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는 중장기 지역문화정책으로서 문화도시 추진
 - 문래예술촌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 활동 거점지역
 - 문화도시의 기본 구성 요소인 생태, 예술, 민주주의 등에 대한 자원과 잠재력이 높은 도시
 - 영등포 주민들도 “문화도시 환경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1.2. 주요 내용

(1) “생태,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도시 영등포 추진

- 문화도시 정책의 본래 취지인 생태, 예술, 민주주의(협치) 등에 기초한 문화도시의 모델로서 영등포 도시전략 수립 및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의 문화적 가치, 창의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는 문화도시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
- 국내외 문화도시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모색

(2) 문화도시를 향한 영등포 문화협치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화

- (가칭)영등포구 문화도시촉진위원회 발족 및 운영 활성화
 - ‘(가칭)영등포구 문화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영등포구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기구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 영등포구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치기반 마련
 - 영등포구 안과 밖의 다양한 전문가 협력 풀(pool)과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율모임 지원 및 협치 활성화
 - 지역자율모임을 중심으로 영등포구 문화예술인, 주민, 활동가, 중간지원 조직 등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 기반 협치 제도화
 - 지역문화사업 관련 개방형 공론장이자 공유지(common)로 활성화 모색
 - 의제설정에서 사업추진까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 마련
 - 지역자율모임을 계기로 협치 파트너의 개방성과 다양성 구축

(3)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연계

- 공유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공유 소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민관산학 거버넌스 정착
 -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 지원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 공공기관민간단체 협력 내실화
 - 글로컬(GLocal) 교류 확대

1.3. 참고 사례 : 공유성북원탁회의

(1) 개요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스스로를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모임, 단체)들 사이의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공존 및 협력을 위해 더불어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정의하고 있음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2014년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제안을 통해 자율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약 300여명(운영위원 20명, 워킹그룹별 활동가 100여명, 기관 관계자 30여명, 모임 참여 예술가 및 주민 약 150여명)이 함께하는 지역 내 대표적인 민간 협치형 커뮤니티로 활성화되었음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자율적 활동’(자율성), ‘문화민주주의’(민주성), ‘우정과 협력’(연대성), ‘문화다양성을 통한 차이의 존중’(다양성)의 가치와 원리를 통해 운영되어 왔음.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전체 모임(월 1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일상적으로는 전체 모임이 위임한 운영위원회(매년 12월 전체 모임에서 선출, 월 2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2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1명은 토론과 투표로 선출, 다른 1명은 사다리타기로 선출)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불가함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커뮤니티인 동시에 성북문화재단, 성북 지역 내 공공기관들, 성북구청 등과의 문화협치 조직으로 활성화되어 왔음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마을민주주의와 지역협치를 통해 문화예술생태계 형성, 문화행정 협치구조 마련, 지역 내 축제 기획 및 운영, 다양한 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권역별 생활예술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등을 펼쳐왔음



(2) 주요 활동 현황

[문화협치 기반 만들기]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문화생태계와 관련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협치 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음
- 문화협치 기반 관련 연구조사와 의제화 : 공유성북원탁회의+성북문화재단 애뉴얼리포트 발행, 성북구 문화비전과 문화정책 연구, 성북문화재단 비전과 사업 연구, 문화다양성과 생활문화 등 다양한 문화정책 연구 및 의제화 외
- 공론장과 네트워크 형성 : 공유성북원탁회의, 공유성북원탁회의 내에 다수의 워킹그룹, 월간동네교육과 공공도서관 동행원탁 등 의제별 모임 구성,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 개최, 공유성북원탁회의 운동회와 모꼬지 진행 외
- 문화협치 기반을 위한 실행 활동 : 의제별, 사업별, 권역별로 다양한 워킹그룹과 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
- 문화협치 제도 기반 마련 :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발족,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조례 제정, 협치성북회의의 구성 및 참여, 문화협치 관련 각종 MOU 체결 외
- 기타 : 마을기반 국제교류, 제1회 문화활동가대회 개최 외

[성북 내 지역 거점 활성화]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 내에서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예술마을만들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음. 이는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사회적 확산, 새로운 주체의 등장 등과 연계되어 진행됨

- 지역별 거점 마련 및 활성화 : 성북동(성북도원,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여성구민회관, 길음예술사랑방, 선잠52 외), 동선동(미인도,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지하소굴,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외), 정릉(정릉휴카페, 정릉공유부엌, 청년살이발전소, 적정기술놀이터, 정릉예술인마을 외), 아리랑고개(공유서가, 마을미디어문화센터, 무중력지대 성북 외), 월장석(천장산우화극장, 마을예술창작소,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외) 등 동네별 다양한 형식의 거점 공간을 형성하고 활성화를 모색
- 예술마을만들기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으로부터 시작, 2017년 7개 권역으로 분권화되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자체 워킹그룹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음

[문화협치 공간의 조성 및 재생]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문화생태계의 기반이자 문화협치의 과정으로서 다양한 공간을 조성 및 재생하였음.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문화기반 공공시설, 유휴공간, 새로운 조성 공간 등이 지역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협치 공간으로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공간들도 형성되고 연계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지역 도시재생 사업 참여 : 장위동 도시재생 사업, 정릉 신시장 사업, 정릉예술인마을, 창조인빌 외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기획 및 운영 : 공유서가, 미인도, 청소년문화공유센터,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무중력지대 성북, 성북예술가압장 외
- 문화예술 공간 재생 및 활성화 : 성북도원, 성북예술창작터,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천장산우화극장 외
- 민간 문화공간 형성 및 연계 : 마을예술창작소 다수, 길음예술사랑방, 선잠52, 지하소굴, 슈필렌쉐어하우스, 선잠52 외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 내의 시민들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협력하는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 왔음.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 내 축제와 행사가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며 문화다양성, 생태문화, 지속가능하고 자기주체화된 축제 등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
- 문화협치에 기반한 축제 개최 : 성북구의 대표 축제와 동 축제 등을 공유성북원탁회의가 협치형 축제 모델로 전환하여 큰 성과를 거둠. 특히 <성북세계음식문축제 누리마실>은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기초하여 민관협력형 축제 운영 모델을 수립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지역의 자기주체형, 시민주도형 축제 환경 만들기 : 지역 내 축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여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축협)를 구축. 이 과정에서 지역 축제에 대한 학교, 포럼, 협력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 활동]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지속적인 활동은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음
-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은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미인도, 성북도원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시민 주도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
- 또한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문화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직접 창업하거나 지원해 왔음. 이에 현재 협동조합성북신나(청년문화 관련),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마을극장 관련), 성북문화예술교육기협동조합 마을온예술(예술교육 관련), 협동조합고개엔마을(지역문화, 시민시장 관련), 협동조합문화변압기(구 협동조합누리마실친구들, 축제 및 문화다양성 관련), 협동조합아트플러그(시각예술 관련)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개별 경제활동을 넘어 다양한 문화행사, 지역축제, 전통시장 재생사업(정릉신시장사업), 시민시장(개울장, 고개장 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사회적 연대 활동]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의제 등에 대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음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 : 세월호 연장전, 세월호 추모 행진 외
- 경의선 공유지 활동
- 재능교육 정리하고 노동자 연대 활동
- 성북동 플라타너스나무 사건
-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광화문 캠핑촌과 촛불집회 : 박근혜 퇴진과 블랙리스트 예술행동

2. 영등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플랫폼 구축

2.1. 제안 배경

(1) 개인의 삶을 둘러싼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생활문화의 중요성 부상

-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 최근 들어 문화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문화 등에 주목하며 정책과 제도의 중심을 지역으로, 일상으로 이행하고 있음
-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최혜자, 2018)

구분	근대적 패러다임	(생활)문화의 발견
가치체계	국가적 질서 중시	개인의 행복 중시
질서체계	권위와 복종	공공적 가치의 재발견
노동과 삶	노동과 일상(문화)의 분리	일과 삶(문화)의 균형
문화주체	사람과 예술의 분리	누구나 예술가

(2)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의 확산

-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법적 용어가 되었으며, 정책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상 속 주민 주도적 문화정책 사업
- 서울시의 생활문화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기본 골격 하에 준비되어 2016년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이는 예술동아리 활동과 동아리 간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강조된 형태로 추진 됨

2014.	1.	「지역문화진흥법」제정
2016.	6.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발표 '생활 속 문화 활동 촉진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가 일상인 도시 조성'
2016.	8.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2016.	12.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7.	1.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7.	3.	서울문화재단 내 생활문화지원단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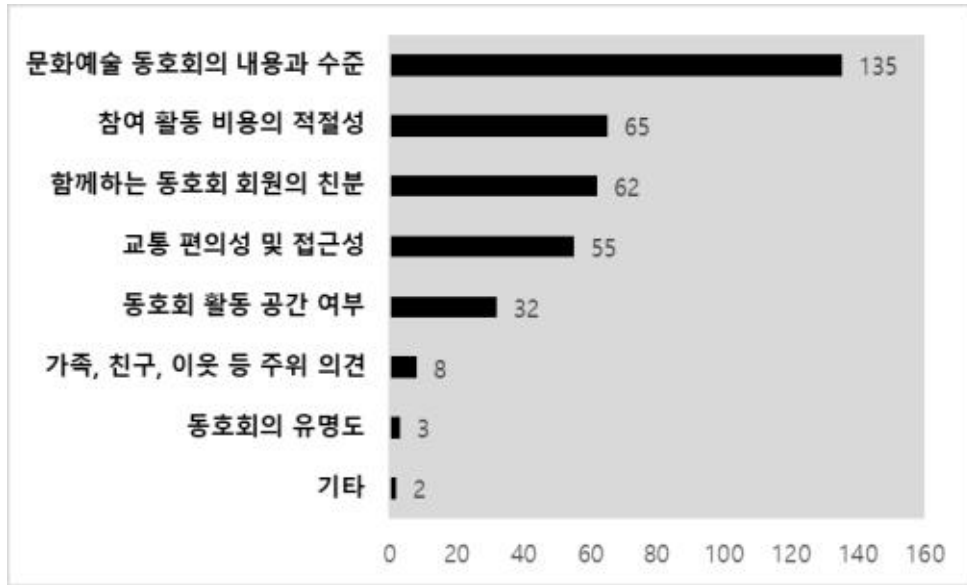
사업의 영역별 구성		생활문화정책2.0의 사업내용	
사업축	수진전략	사업영역	사업군
자치구 중심 축	일상 중심 생활문화	1.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지역생활문화계획인 가칭"00생활문화"를 원탁회의 같은 형식을 통해 계획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과정의 결실로 이루어진 사업
	(Everyday-일상회복)	2. 지역 생활문화지원	가칭"00생활문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생활문화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영역으로 이루어진 사업
서울시-서울문화재단 중심 축	재미있게 공유하는 생활문화	3. 생활문화활동가 양성	생활문화 촉진을 위한 지역 생활문화활동가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Exciting-가치 확장)	4. 생활문화 놀장(樂)	경험형 장르형 축제 오케스트라 행사 대신 워크숍형 관계 축제로의 전환, 시민 놀이형 축제로 전환된 사업
	쉽게 하는 생활문화	5. 생활문화 활동지원	생활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실험사업, 자발적 활동 촉진과 네트워크 등 일반시민의 생활문화 유입을 위한 사업
	(Easy-여건번리)	6. 생활문화 여건 조성	생활문화브랜드 구축, 온라인플랫폼 운영, 생활문화평가지표 개발, 생활문화캠페인, 생활문화포럼 등 생활문화 접근성 강화하는 사업

- 문재인정부의 생활문화정책 주요 현황
 - 국정과제로 생활문화 선정
 -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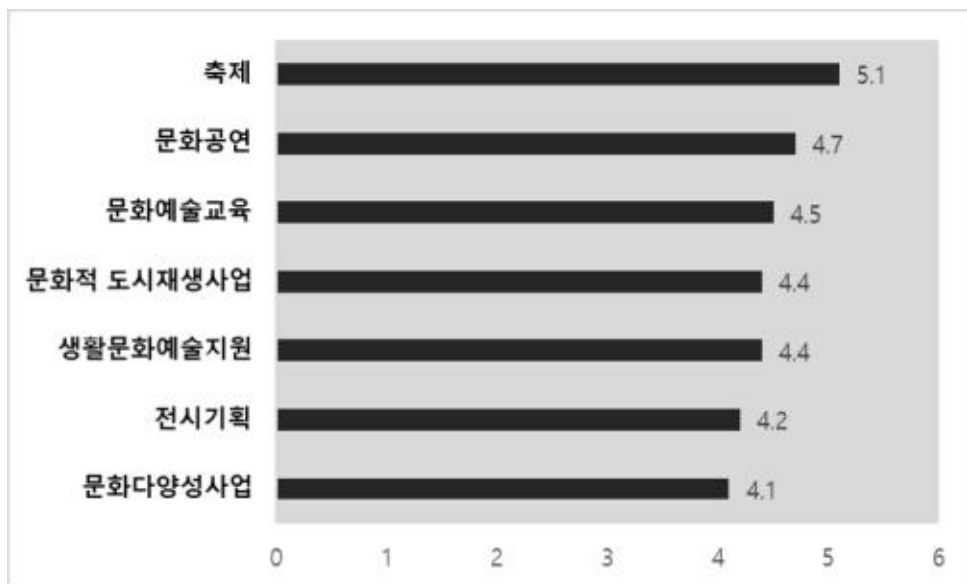
(3) 영등포의 문화환경 분석 결과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필요

- 영등포 문화환경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 필요
 - "시민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장점),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 의사 및 활동 확대"(기회), "지역의 문화예술 생산과 향유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 미흡"(약점) 등에 기초하여 영등포형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필요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 영등포의 경우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콘텐츠나 프로그램 관련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 영등포의 삶의 질, 문화와 예술의 일상성, 지역 내 관계 회복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생활문화 사업 추진 필요
 - 주민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영등포형 모델로서 생활문화와 축제의 적극적인 연계 전략 필요
 - “대규모 축제 및 다양한 문화사업 운영 경험 축적”(장점), “축제와 지역 주민과의 일체성 취약”(약점) 등을 반영하는 계획 필요
 -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선호도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의 경우, 영등포 문화환경 SWOT 분석 결과 WO(약점+기회)전략으로 “생태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강화”를 제시 :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인프라 개선, 축제의 질 향상

2.2. 주요 내용

(1) 생활문화의 새로운 가치에 기반 한 영등포 생활문화 정책 패러다임 제시

- 기존 공급사업 중심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서 “삶의 전환과 가치 확장”으로 생활문화 정책 전환
- 현대 도시에서 삶의 회복을 위한 생활문화 환경 구축 추진 :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생태친화적인 삶의 환경 구축,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의 삶의 질 확보, 도시 내 관계성과 공동체성 회복 등
-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 정책과 사업 추진 : 문화도시 영등포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

(2) (가칭)영등포구 생활문화지원 플랫폼 구축

- 생활문화와 일상예술에 기반 한 주민주도형 생활문화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생활문화 거점공간 조성 및 네트워킹 추진
- 영등포 내의 유휴, 조성 공간을 영등포 생활문화커뮤니티지원센터로 구성 및 운영
- 영등포 생활문화공간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영등포구 직장인 대상의 타겟형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구립 도서관 및 마을도서관으로 활용

(3) (가칭)영등포구 생활문화축제 생태계 형성 : 생활문화와 축제 연계 사업 활성화

- 관람형 · 성과형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마을문화, 시민시장, 사회적 경제 등이 협력하는 영등포구형 생활문화축제 모델링
- 영등포 생활문화축제학교 프로그램 추진

(4)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연계

■ 시민예술 활성화

- 시민예술단 창단 및 운영
- 영등포예술학교·영등포시민학교 운영
- 마을기록학교 운영
- 생활문화예술주체 발굴과 지원
- 영등포 공공예술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인문·문화 활성화

- 인문·문화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강화
- 소통·토론형 독서활동 강화

■ 대표브랜드 사업 개발

- 생활문화커뮤니티 기반형 수변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2.3. 참고 사례 : 독일 우파 파브릭(Upa Fabrik)

(1) 배경 및 개요

- 독일 베를린 남쪽 시내 중심가 포츠담 템펠호프에 위치하고 있는 우파 파브릭(Upa Fabrik)은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공간이자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네 측면이 복합적으로 융화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단순히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공간(방문형)이 아니라 직접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거주형으로서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학교 주민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이곳은 1918년 설립된 독일 최대 영화사인 유니베르쥬영화사 (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 UFA)의 필름현상소였던 곳으로 배우들과 Text를 확인하고 필름을 현상하는 음향시설 수리공장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우파 파브릭이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베를린 장벽이 동서 베를린을 갈라놓고 있었음. 유니베르쥬 영화사의 촬영소는 이 베를린 장벽의 설치로 인해서 문을 닫고 30년간을 방치되었음
- 이 공간을 개조해서 지금의 우파 파브릭으로 만든 것은 서베를린에 거주하면서 징집을 피해서 온 예술가들이었음. 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희망했고 그것은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인 생태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었음
- 특이한 점은, 독일 전역에서는 1970년대에 공간의 무단점거가 다반사였는데 독일 전역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이러한 무단점거가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무단점거 시작 3주 후 베를린 시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임



(2) 운영특징

- 우파 파브릭 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정착과정에서 자체적으로 (Upa Fabrik) 재원을 조성하였다는 점임. 주민이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예로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도시에서 인간답게 살기라는 목표아래 첫 8년 동안 개인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 합의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였음
- 수입의 대부분은 그들이 기획하고 조직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충당하였고 이외에도 기부와 개별대출 커뮤니티 बैं크인 베를리너 네츠베르크 (BerlinerNetzwerk)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내면서 가능했고 1986년 6월에는 땅 소유주인 베를린 주정부와 3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건물과 부지를 베를린 주정부로부터 1989년부터 35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베를린은 공간 활용 및 개조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60%의 지원금과 40%의 자체비용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우파 파브릭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기술이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적인 생태마을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주민들이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는 대안적 마을로서 자리 잡았음
- 우파 파브릭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 이곳에는 200명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30여명의 협력자들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문화 활동은 컬처센터 문화 담당자가 운영하지만 독단 등 내부 정체를 우려해 외부에서도 초빙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예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순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벗어나 보다 대중적이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대안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예술과 생태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술의 소비를 단순한 감상형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영역 안에서 유용한 예술의 소비를 추구하고 있음
- 우파 파브릭 내에 있는 공동체자립센터에서는 유아와 청소년 노령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들에게 동양의 무예를 배우거나 요가, 스포츠 명상 성악 미술 요리 등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전문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한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임

- 이런 생활문화 기반의 활동들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문화센터는 문화와 문화교류를 지원함. 그리고 국제교류 및 지역교류를 바탕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축제 등을 개발함
- 우파 파브릭의 교육 이념을 잘 알 수 있는 자유학교 (die Freie Schule) 에서는 어린이 농장(Kinderbauernhof)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배우고 자율적으로 실천함. 어린이 농장에는 말 돼지 오리 토끼 등 총 40 여 종의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음. 가축들을 돌보며 더불어 사는 것은 단순히 농장 차원을 벗어나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임. 어린이 농장에서는 1년에 두 번 300~400여명 인근 지역의 어린이가 참석하는 가족 페스티벌과 200~300여 명이 참석하는 연등 축제 행사를 진행함. 해마다 독일 전통 명절에 행하는 페스티벌 행사에서 우파 파브릭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이 되는 것임
- 생태와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고 태양광 빗물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재활용 등의 활동과 시설을 구축하는 실천적인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과 세미나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생태적 삶을 위한 기술학교 교육도 있음. 생태건축 전문과정과 크노벨 도르프 학교(Knobeldorff Schule)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500 명이 넘는 청년들이 벽돌공 목수 미장공 난방설비 냉방기술 구조기술 전기 기술 등을 습득하고 졸업하였음. 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우파 파브릭 공동체가 고민해 왔던 생태적 거주 문제를 교육하고 여러 곳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발전시키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파 파브릭은 “삶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 ‘문화주거 공동체’라는 점임. 단순히 프로그램이 있는 ‘방문형 문화공간’이 아니라 직접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거주형’ 으로서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학교 주민센터 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3) 운영시사점

-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희망하면서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인 생태적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상을 꿈꾸는 예술가들이 들어왔다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
- '무단점거'라는 방식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 베를린시 의회의 결정으로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받은 공간이라는 점. 이러한 '드라마틱한' 공간 이용까지의 과정은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임. 물론 치열한 찬반 토론 과정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이 공간 자체가 지역 주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임
- 정착 과정에서부터 자립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고 사적 소유의 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한 애정과 이 공간에 함께 사는 공동체의 결속력이 컸다는 것을 증명함. 요컨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의 핵심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들의 공동체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 그들의 결속력 강화에 커뮤니티 बैं크 및 베를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단지 공간 하나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씨앗이 되는 허브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공공에서의 장기적 지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우파 파브릭이 생태공동체를 지향한 것처럼 앞서 말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서울 농대의 전통을 있다는 측면에서 이 공간을 생태공동체적 거리예술 집단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임. 우파 파브릭처럼 어린이 농장을 운영하거나 목공소나 건축 기술 등을 가르치는 학교의 운영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및 유청소년의 대안적 교육 내용 제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생산해내는 다양한 산출물 (농축산물 혹은 목공예품 등)이 거주 예술가단체들이 자립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 또한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 중에 주민들 및 예술가들을 개입시키는 것도 공간에의 애정 및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음. 만들어진 공간에 입주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간에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음

3. 영등포 도서관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역학(영등포학) 생태계 만들기

3.1. 제안 배경

(1) 시대적으로 정보 공급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개인, 공동체, 지역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과 체계 필요

■ 지역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정체성, 역할, 비전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저성장, 노동시간 단축, 양극화, 기술혁명, 산업구조 변화, 포스트휴먼, 위험사회 등 전환적 삶의 시대에 조응해야 하는 도서관 정책

■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식정보 순환(상호학습)과 지역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 요구가 높음

-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회 요구하는 시민들

- (독서의 감소) 성인 독서율은 4년 사이에 12%p 하락('13년 71.4% → '17년 59.9%) 하였고, 도서구입비도 지속적으로 하락('10년 25,921원 → '16년 15,234원)
- (선호 매체의 변화) 전자책 유통37%, 전자책 출판17.8% 증가('16년, 전년대비)
 - *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13년 94.5건에서 '17년 261건으로 대폭 증가
 - * 모바일 원주민('95년~'05년 출생자 640만 명)인 20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텍스트 이용량은 29.6%로 나타났고, 완독 비율은 42.4%(내일20대연구소, 2015)
- (여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물리적 공간의 장점 활용, 인쇄매체 선호,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선호하는 사람들
 - *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은 도서관 ('16년 16.1%,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19~2023>, 2019.

(2)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협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과 체계

■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를 제시하였음

4대 전략방향 및 13대 핵심과제

1	2	3	4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p>0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p> <p>0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p> <p>0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p>	<p>04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p> <p>05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p> <p>06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p>	<p>07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p> <p>08 공간의 개방성 확대</p> <p>09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p>	<p>10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p> <p>11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p> <p>12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p> <p>13 도서관 인프라 확대</p>

- 서울시의 경우도 5개 권역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선언하며 도서관 정책의 전환과 확산을 추진 중

[시립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분관)의 역할 및 서비스]

①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서비스 실행 도서관

- 서울도서관에서 수립하는 도서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전 생애에 걸친 도서관 서비스를 배포하는 정책 실행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실행

② 장서의 전문·특화자료 서비스 및 보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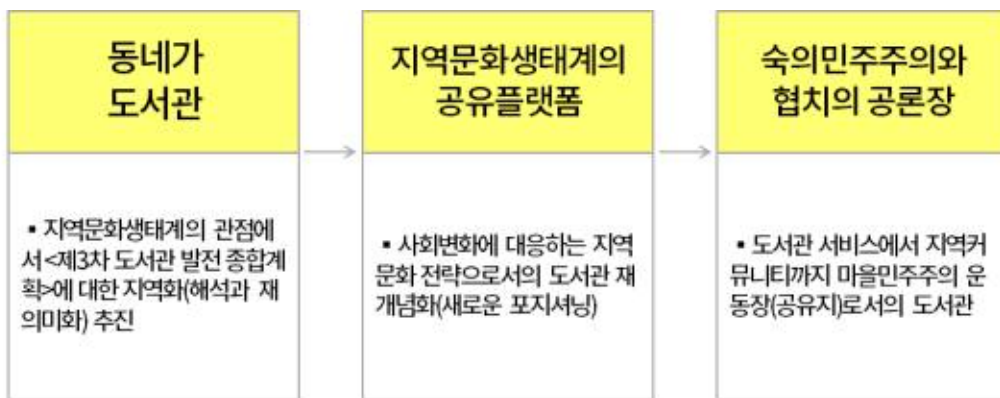
-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구입·서비스하기 어려운 주제별 전문·특화자료 서비스
 - ▶ 인문사회과학, 경영비즈니스, 그림책 등 특정주제 분야의 전문자료 구축·제공
- 종이책 뿐만 아니라 디지털정보, 비도서자료의 망라적 수집으로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도서관 이용만족도 극대화
- 장서보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최신자료 확충 지원

③ 평생학습메이커스페이스 등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원스톱 서비스

- 독서뿐만 아니라 인문학강좌, 독서동아리 및 문화 활동 등 시민이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기술 습득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각종 디지털 장비를 구비한 실험과 교육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3) 영등포 문화정책에 기반한 적극적인 지역 도서관 정책과 운영 모델 추진이 필요한 시기

-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에서 분석하고 있는 “독서 진흥 및 문화복지 강화”(강점), “도서관의 전문성 발휘 기회 제한적”(약점), “향후 영등포구에 더 확충해야 할 문화예술공간 : 도서관 24.9%)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도서관 사업 추진 필요
- 영등포 지역 내 거점별로 도서관이 존재하며, 영등포문화재단 활성화 과정과 연계하여 전환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됨
- “영등포구의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 의지가 존재”하며 “차별화된 도서관 정책과 사업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음



“도서관 너머 도서관”

3.2. 주요 내용

(1) 영등포구 커뮤니티 거점형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신규 도서관 조성 및 거점형 도서관 형성하여 지역문화 기반 공간 확보
- 주요 공공공간(시설)에 작은 규모의 특성화 도서관 조성 활성화

(2) 도서관 연계 지역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영등포문화재단을 허브로 도서관과 지역 내 다양한 문화사업(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세대별 문화지원 사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생활 밀착형, 지역 연계형 정보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마을커뮤니티 자료들의 아카이빙 및 지역학(영등포학) 프로젝트 추진
- 학교, 평생학습, 공공기관 등과 지역 내 지식공동체 및 지식순환생태계 구축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적극 연계

•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 지역문화생태계 내의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연계 활동 활성화
- 도서관 커뮤니티, 지역문화생태계, 지역협치 네트워크 등과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접근과 소통 강화
- 동네 도서관별 정체성을 다각화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환경 조성
- 시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양한 책(은·오프, 아날로그·디지털)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제작 활동 활성화 : (예시)책Lab(독립출판·미디어+제작문화 랩)

•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 참여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상호학습과 협력의 다양한 플랫폼 제시
- 현행 도서관 커뮤니티들의 다음 버전 기획 및 추진 : (예시)액손라이브러리
- 동네별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 협치 핵심사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 동네아카이브와 사람도서관 : 구술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동네, 지역문화, 도시역사 아카이빙 진행
- 동네학(예: 성북학)과 동네캠퍼스 : 지역학을 매개로 다양한 평생학습, 아카데미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커리큘럼·교육콘텐츠화 하는 지역도서관 기반 지역프로젝트 활성화

•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 “동네(마을)이 도서관” 또는 “지붕 없는 도서관 마을” 또는 “OO은도서관” (예시:영등포는도서관) : 다양한 지역내 공간들을 “움직이는 도서관” 개념으로 호명(재공간화)하여 네트워킹(코워킹), 물리적 공간과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웨어와 휴먼웨어 중심으로 연결
- 도서관 운영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 심화 및 구체화 :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역프로젝트 추진 : (예시)시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캠페인, 문턱 없는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외

• 미래를 여는 도서관

- 지역내에 도서관 자체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임 구성과 운영 : (가칭)동네도서관연구소(세미나·스터디 모임), (가칭)동네도서관여행자(여행·탐방 모임) 등
- 도서관 관련 모임과 커뮤니티를 융합하는 협치 테이블(숙의민주주의와 공론장)과 체계 구축
- 지역의 지식공유와 책문화 플랫폼으로서 책을 매개로 하는 시민시장 기획 및 운영 : 지역 내의 시민시장과의 협력 활동도 모색

(3)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연계

- 공유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도서관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 민관산학 거버넌스 정착
 - 도서관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활성화
- 문화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도서관 시설 개선 및 확충
- 시민예술 활성화
 - 마을기록학교 운영
- 인문·문화 활성화
 - 인문·문화 서비스 확대
 - 소통·토론형 독서활동 강화
 - 도서관 아웃리치 확대
 - 영등포 북페스티벌
- 문화예술자원종합DB 구축
 - (온라인) 문화자원/실태조사 DB 구축
 - (오프라인) 영등포 라키비움 설립 및 운영
- 지역공동체 기억 보존·공유·확산
 - 지역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 지역자원 탐방 및 기록

3.3. 참고 사례 : 런던의 지역공공도서관 아이디어스토어



(1) 배경

- 영국의 21세기가 밀레니엄에 환호하며 시끌벅적하게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과거의 모습들을 재건할 무렵, 이 시기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환호보다는 존재 이유를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름
- 20세기 후반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공간)
 - 도서관 이용자수와 대출건수의 급격한 감소
 - 도시화와 더불어 이민자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
- 영국 공공도서관의 위기는 과거 장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도서관을 도시재생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도서관 운동'이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

-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정책문건인 <미래를 위한 체계: 도서관, 다음 십년 후의 학습과 정보> 속 공공도서관의 세 가지 목적에서도 잘 드러나며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자정부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
 - 소외현상 극복과 커뮤니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성 확보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새로운 공공공간의 의미를 지닌 공공도서관을 사회가 요구하게 된 것

(2) 내용

- 새로운 도서관 운동과 더불어 도시 재생이라는 패러다임과 함께 탄생한 영국 런던의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공도서관
- 지역의 일상을 품은 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화이트채플) Whitechapel Idea Store
 - 20세기 후반 영국 공공도서관들이 직면한 위기 속, 런던의 '타워 햄릿 (Tower Hamlets)' 지구에서도 도서관 시설의 낙후와 이용자 수의 급속한 감소는 공공도서관의 혁신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화이트채플의 '아이디어 스토어'가 2005년 개관하기까지 약 7년 동안 지역 공공도서관의 혁신을 위해 의회와 관계자들은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
 - 1998년 의회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개방시간을 늘리고 일요일에도 개방할 것, 양질의 도서를 제공할 것, 쇼핑공간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지역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 예술작품 전시를 병행할 것, 비디오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음
 - 주민의 50% 이상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지역성과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들은 화이트채플의 '아이디어 스토어'가 소매점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동선에 묻어나도록 시장의 일부로 지어졌음
 - 이러한 접근성은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 전략을 통해 방문자 수가 400% 증가하고, 도서대출 28%, 도서관 만족도 20%가 상승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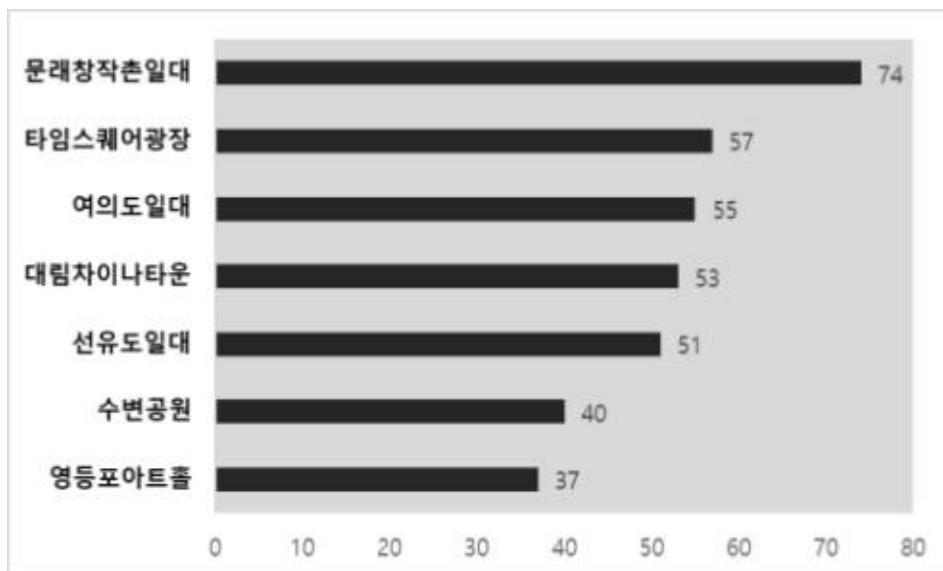
- 실제로 '아이디어 스토어 화이트채플'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부터
댄스, 발레, 기타, 드럼, 음악, 경영 강좌, 디자인, 컴퓨터 등 매년 900개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수강
 - 더불어 가장 꼭대기 층의 탁 트인 카페테리아 공간 건너편에는 상시
예술작품 전시와 함께 해당 예술품들의 도서정보가 제공되는 서가
- 다양한 이민자들이 다수인 이 지역에서 '아이디어 스토어'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일상을 품은 곳에 위치하며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유도
-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도서관(Library)' 이라는 명칭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게 했으며 새로운 이용자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함
 - 또한 도서관이 가지는 '책'이라는 절대적 가치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서관 공간의 질적 향상은 위기에 봉착했던 타워 햄릿지역 공립도서관이 지역을 품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음

4. 영등포형 예술인복지 및 지역안전망 확보

4.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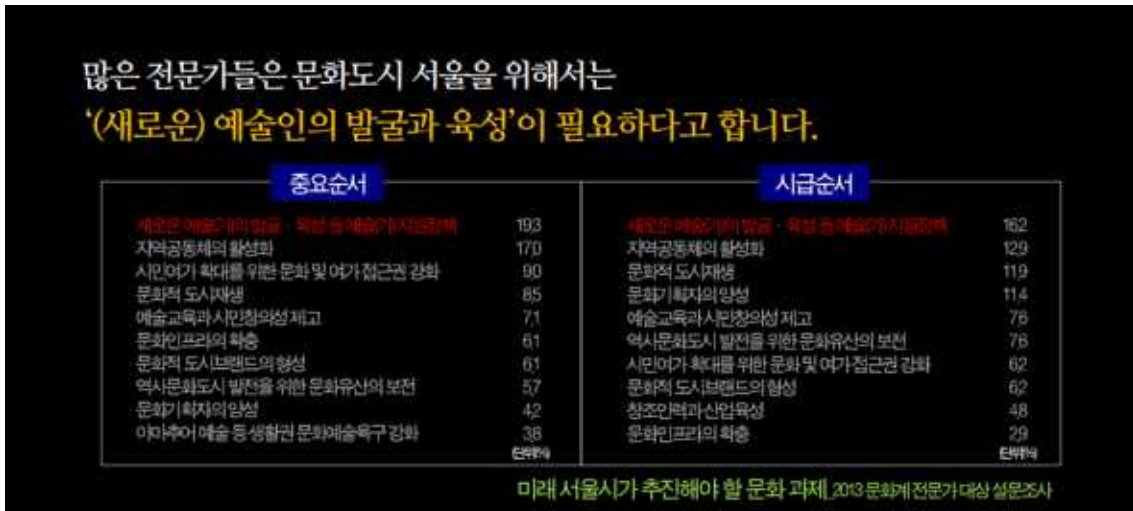
(1) 대한민국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지역으로서의 적극적인 영등포 문화예술생태계 전략 필요

- “문화, 예술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 보유”(강점), “문래창작촌 중심의 다양한 장르의 도전적 문화예술 발달”(강점) 등의 영등포 문화환경 분석처럼 문화예술생태계는 영등포 지역의 중요한 특성이자 강점
-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영등포문화재단의 SO(강점+기회)전략으로 “지역수요 기반 창조적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제시
 - 지역문화예술 선도기관으로 위상 강화
 - 지역문화 대표 콘텐츠 개발
 - 수변도시 영등포 브랜드 강화
-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영등포구의 가장 보여주고 싶은 문화적 장소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생태계 거점지역인 “문래창작촌 일대”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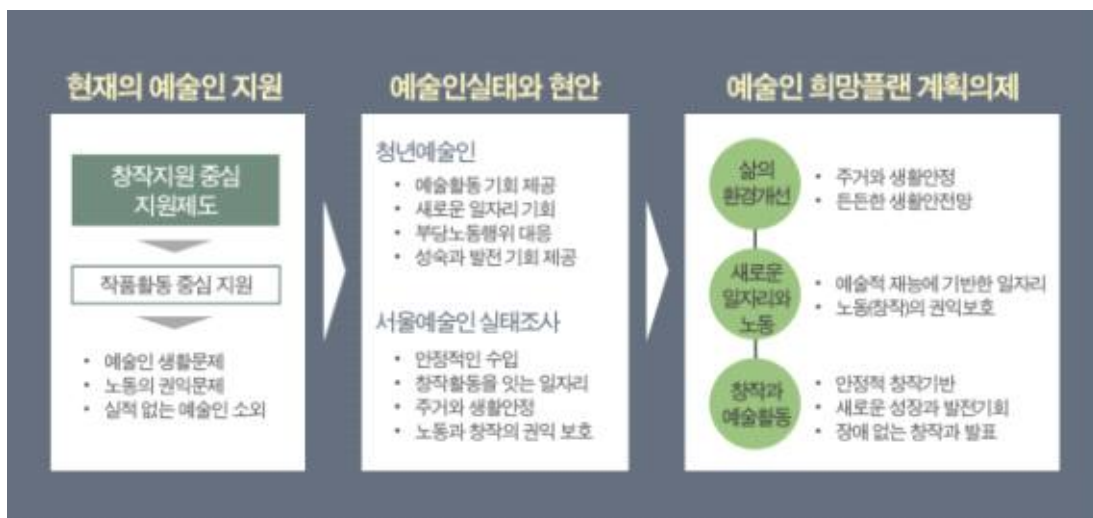


(2) 예술인을 비롯하여 창조적 주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영등포가 되기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예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은 매우 미흡한 상황



-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생태계 거점지역들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인, 창조적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 그리고 거점화를 위한 적극적인 생태계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고민해야 함



* 서울연구원, <예술인 희망플랜>, 2016.

(3) 서울시-영등포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전환점으로 문화예술생태계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영등포형 예술인 플랜 추진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계획서 : 서울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 문래창작촌 주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예술인의 재이주 및 지역정체성 위기
 - '철공소-예술공간(공방, 전시장 등)-마을미술(골목길)'이 혼재한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창작촌이라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지만, 최근 주변 도시 재생사업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예술가 및 장인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직면함
 - 문래창작촌 내 임대료 상승으로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 추세임
 - 창작의 주체로서 예술가와 기술인은 기존 철공소와 예술의 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함께 만들어낸 "문래창작촌"이라는 지역정체성의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함

- 창작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 요구
 - 예술과 기술산업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예술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기존 예술 역할 논의에 있어 장르적 틀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 하나의 씬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앞으로의 예술은 현재의 예술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문화적 실험을 통해 주체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예술활동이 요구됨
 - 새로운 예술실험 및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경제여건상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 필요

- 예술생태계 네트워킹을 위한 창작플랫폼(예술생산플랫폼) 구축
 - 문래창작촌 지역의 저렴한 임대료에 다수의 예술가(단체)가 유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개인의 인맥 관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개개인이 문래창작촌 내 추정 300여명의 예술가 및 150여 곳의 문화공간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대상지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단체), 주민(공동체) 등과 관계를 갖고 정보를 파악,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및 소통을 기대

4.2. 주요 내용

(1) 예술인이 살고 싶은 도시 영등포

-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창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정책, 지원 플랫폼구축
- 정부,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

(2) 주거와 창작이 연결되는 공간 정책

- 영등포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작업장 확대 조성
- 영등포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창조적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연계형 협력활동 추진

(3) 영등포 지역 활동과의 창조적 연계

- 예술인들이 주거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역문화기반시설(도서관, 공연장 등) 연계사업
- 유희공간(토지) 작업실 임대 사업 외

(4) 영등포문화재단 중단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연계

- 문화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예술창작 · 발표 · 교육 환경 개선 및 확충
- 지역문화특화 재생 및 활성화
 - 대림-도림 아시아 예술마을 추진
 - 문래-영등포 문화특구사업 추진

- 대표브랜드 사업 개발
 - 영등포 도큐멘타(트리엔날레, 빅텐트)
 - 기술인문예술 융복합 사업 개발 및 지원

- 영등포아트홀 브랜드 강화
 - 상주 문화예술 단체 운영
 -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인문 자원조사
 - 구민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단체(인) 활동 실태조사

4.3. 참고 사례 : 런던의 민와일 스페이스 (Meanwhile Space)

(1) 배경 및 개요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영국예술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되어 미술 시장의 특성상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지 못한 대다수 예술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상황임
- 영국 런던의 공간 운영 특성: 런던의 경우 비어 있는 공간에 세금을 부과함(Empty Property Rates).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주들은 빈 공간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음
- 이런 상황 때문에 매매되거나 세입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하는 이런 공간들을 영국의 자치구는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설립된 '민와일 스페이스'는 일종의 마을기업인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CIC)로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공간을 빌린 후 이를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일시 활용하는 것임
-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민와일 스페이스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예술가와 연결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영국 내 17개 지역에서 2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사업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웹블리(Meanwhile Space)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악명 높은 범죄 구역이었음.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도시계획에 힘입어 범죄율 1위의 오명은 벗었지만 이민자 통합은 브렌트구의 주요 고민이었음. 브렌트구 인구의 82%가 유색 영국인임
- 이 지역에 있는 10개 건축 공간 활용에 대한 리서치를 의뢰받은 민와일 스페이스는 가장 먼저 3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차 전시장(car showroom)을 17개월 동안 빌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
- 이곳이 바로 코트렐 하우스(Cottrell House)임. 민와일 스페이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로부터 시세의 반 값 이하로 이 공간을 빌렸음



(2) 운영특징

- 민와일 스페이스는 코트렐 하우스에 왕립 예술학교의 건축학과 학생들을 입주시켜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였음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웹블리 시민학교(Civic University Wembley)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음
- 예를 들면 취약 계층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소셜 키친 운영. 이민자들의 다양한 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의 방법이 있음
- 또한 웹블리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커뮤니티 워크숍도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 리사이클링 이동식 주차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는 자치구인 브렌트구에 지역 개선 보고서로 제출되었음
- 만약 코트렐 하우스가 여전히 비어 있다면 건물주는 월 4000파운드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고 함. 하지만 이 공간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와일 프로젝트에 사용됨으로써 세금을 감면받았고 최근에는 건물 매매까지 이루어졌음
- 이러한 지역 재생 프로세스는 빈 공간을 활용해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3) 운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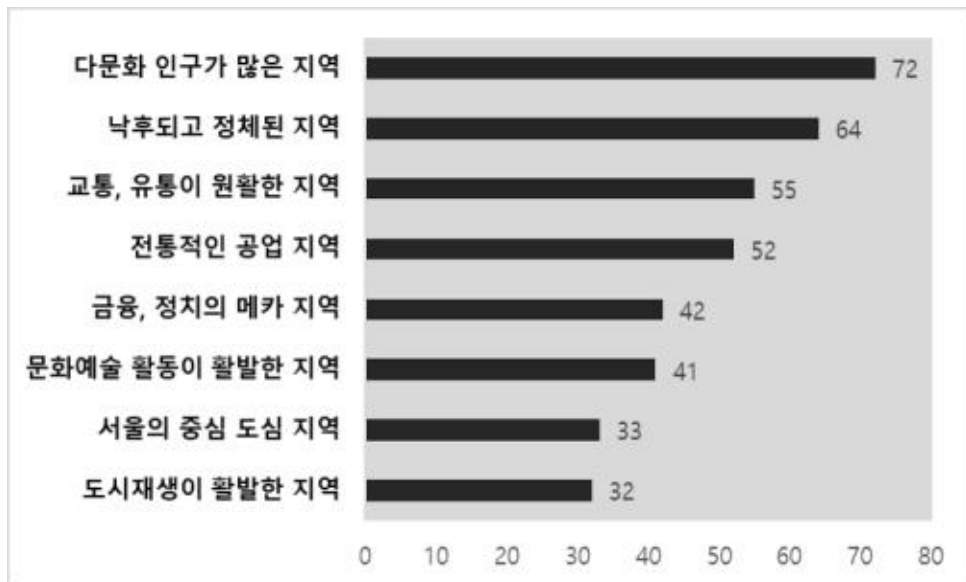
- 정책적 관점 : 비어 있는 공간에 세금 (Empty Property Rates)을 부여함으로써 공간이 오래 비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 예를 들어 우범지대화(化) 등 - 을 방지할 수 있고, 임대료를 내려서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도시 재생 과정에 전문성 있는 지역 민간 기업 육성 : 민와일 스페이스와 같이 지역 공간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이 육성되면 공공기관의 고민을 덜 수도 있고 그 민간 기업이 지역 주민과 공공 기관 사이의 도시재생 매개자 (Urban Regeneration Facilitator: URF)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간 재생을 위한 지역 논의체 구성 : 민와일 스페이스는 왕립예술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을 입주시켜 그들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음. 도시 공간 재생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웹블리 시민 대학'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직접 현실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공간 재생 방식이라 생각됨

5. 영등포 권역별 지역특화문화 재생 및 활성화

5.1. 제안 배경

(1) 영등포는 권역별로 특성이 강하며 각각의 정체성에 기초한 특화문화지구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도시 자연환경 자원 풍부”(기회), “지역 중심의 문화민주주의와 지역분권 강조”(기회), “권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및 문화예술 수요 격차”(위협) 등 영등포 내 지역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 본 연구에서도 대림권역, 신길권역 등을 중심으로 권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확인되었음
 -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임



- 영등포구의 도시 이미지에서 “잠재력 있는”이 가장 점수가 높은 키워드로 선정됨. 이는 앞서 분석했듯이 영등포구 권역별로 다양한 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



(2) 영등포 권역별로 다양한 특징과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정책 차원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에 특화된 정책 추진의 가능성
 - 신길동과 대림동 중심으로 이주민 다수 밀집
 - 새로운 인구 구성으로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
- 지역 거점형 다양한 민간 주체 등장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예술인 등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 존재
 - 권역에서 거점화 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 내에서 정책 및 사업 계획진행 중
 - 양평동과 당산동 중심으로 예술인 인구 증가
- 생태관광 자원 풍부
 - 한강, 샛강, 선유도, 밤섬, 안양천, 도림천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수변 생태자원 풍부

- 안양천과 양평동 공원화 계획 등 향후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요인

- 생활권에 따른 뚜렷한 지역 특색과 통합적 연결의 필요성
 -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영등포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의 특색이 명확함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과 연계 방안 수립이 적절한 조건
 - 지역별 특색에 따른 지역 브랜드 구축 가능

- 특정 지역에 집중 된 공공 문화시설
 - 양평동과 당산동은 예술가 및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공간이 다수 분포
 - 여의도동은 공공 문화시설보다 민간 소유의 문화/상업 시설이 집중
 - 문래동과 영등포동에 공공 문화시설과 상업/관광 시설 집중
 - 신길동과 대림동은 문화시설이 타 행정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

5.2. 주요 내용

- (1) 대림-도림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가칭)아시아 예술마을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영등포 (가칭)아시아 예술마을 추진
 - 문화다양성 기반 (가칭)문화다양성교육 시범 사업 전개
 - (가칭)문화다양성 시민예술대학
- 영등포구와 대림-도림의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교육 기반 형성, 이를 통해 영등포구 대림-도림 지역을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가치 기반 (가칭)아시아 예술마을로 추진
 - 문화다양성의 철학과 가치를 토대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작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협력 단체, 공간(시설) 등을 활용하여 (가칭)문화다양성 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 진행
 - 영등포 내에 있는 다양한 국립, 시립 기관(시설) 등과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적으로 영등포 (가칭)문화다양성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하여 영등포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허브 역할 수행
- (2) 문래-영등포 : 영등포 문화협치형 도시재생 활성화
- 문화예술창작촌 생태계 지원 활성화
 - 문화예술분야 시민 자산화 사업 확대
 - 문화특구사업 추진
- 영등포 청년예술가와 마을 활동 연계 기반 마련
 -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영등포구의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인적자원의 배치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사업을 구와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 단체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확보
- 마을미디어, 예술마을, 마을시장,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들에 전문 문화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 문래예술창작촌 생태계 지원 활성화

- 영등포구와 문래예술창작촌에는 다양한 예술장르와 다양한 세대에 걸쳐 예술가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경제, 공공문화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문래예술창작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실행
- 예술 기반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활동계획, 창작과 제작 유통 통합 생태계 수립

■ 문화예술 분야 시민력과 시민자산화 전략

- 문래예술창작촌 내 자립적 역량에 기반한 지역 내 하드웨어, 콘텐츠웨어, 휴먼웨어 활성화 전략 추진
- 지역 내 문화자원(공간, 사업 등)의 위탁, 시민자산화, 자립운영모델 마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 문화특구사업 추진

- 문화-영등포 문화예술생태계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으로 문화특구사업 추진
- 서울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문화특구사업 추진

(3) 양평-당산 : (가칭)선유 생활예술마을 만들기

- 선유마을 생활예술창작공간 네트워크와 생태계 구축
- (가칭)선유마을 생활예술창작하우스 설치
- 문화특화거리와 광장 조성

■ 생활예술, 생활창작, 생활기술(적정기술) 등을 매개로 하여 선유마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예술마을의 모델 창출

- 영등포와 선유마을의 역사문화,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공동체적 삶의

리듬을 배우는 '생활기술', '생활예술'의 공유

- '제작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통해 미아리고개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선유마을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재생과 사회적 지식의 체화와 확산

■ '생활예술창작공간' 네트워킹 프로젝트 추진

- 목공, 철공, 직물, 작목 공유기술아카이브, 문화콘텐츠아카이브, 제작아카데미의 상호의존과 순환성 확립
- 선유마을 권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생활창작 공간들을 '생활예술제작공간'으로 지정하고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네축제, 생활창작시민시장, 생활창작 지역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아카데미 프로그래밍 등 진행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협력 경제 모델 개발

■ 다양한 생활창작 관련 아카데미 개설

- 생활권 내의 과학기술에서 인문학과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들의 융·복합적 지식을 제작 토대로 구축
- 영등포구 관내, 미아리고개 지역 내 평생학습, 마을교육, 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

■ (가칭)선유마을 생활예술창작하우스 설치

- 앞서 언급한 내용들의 출발점이자 허브 공간으로 선유마을 생활예술창작하우스 설치
- 단기적으로는 이를 준비하고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워크숍, 아카데미 프로그램, 생활예술창작마켓 외) 지원

■ 문화특화거리와 광장 조성

- 생활예술 활동 주체와 콘텐츠 등을 축적하여 문화특화거리와 광장 조성
- 지역 내 축제들과 연계하여 운영

(4) 신길-여의 : (가칭)여의도 생태문화섬 만들기

- (가칭)여의도 생태문화 여행 환경 조성
- (가칭)여의도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예술여행 등 생태여행지원센터 설치
- (가칭)신길-여의 청소년문화벨트 조성

- 여의도의 자연환경과 장소성, 이야기(스토리텔링)을 연결하는 '(가칭)여의도 생태문화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중장기적으로 여의도를 거점으로 영등포구를 생태와 예술, 도보 및 자전거 여행, 영등포 이야기와 문화예술로 연결하는 생태문화 · 관광 거리벨트 구축
- 차없는거리, 거리놀이터, 파크렛, 보행친화 디자인, 팝업스토어, 게릴라가드닝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연계
- 역사문화 장소들과 연계하여(장소특정적 예술) 거리예술, 커뮤니티 아트 등 운영
- 생태문화와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는 (가칭)신길-여의 청소년문화벨트 조성

5.3. 참고 사례 _ 프랑스의 프리쉬 라 벨 드 메 (Friche la Belle de Mai)

(1) 배경 및 개요





-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의 역사는 1990년부터 시작함. 오늘의 공간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프리쉬 테아트르 (Système Friche Théâtre)' 협회를 구성한 마살리아(Massalia) 인형극 극단과 베르나딘(Bernadines) 극단이 마르세유 시 15구 내 마가롱(Magallon) 대로 31번지에 소재하는 폐쇄된 곡류창고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임
- 이러한 시도는 시설이 매각됨에 따라 중단되었고 결국 18개월이 지난 1992년 5월에 지금의 담배제조공장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프리쉬 라 벨 드 메 의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음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90년에 문을 닫은 세이타(Seita) 주식회사는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120,000m²의 거대한 공간으로 마르세유 3구 생 샤를르 역 뒤 에 소재하며 건물 옆으로 철로가 길게 들어서 있는 서민적인 동네임
- 이 곳 세이타 담배 공장에 자리를 잡은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2006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이른바 사회적 경제 개념에 의한 활동을 만들어낸 대표적 기관임

(2) 운영특징

- 프리쉬 라 벨 드 메에는 현재 예술단체, 기업, 예술제작자, 작가 등 80개의 단체가 상주하고 총 6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음. 예술가들과 대중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실험적인 예술을 찾아 연간 12만 명의 대중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음

- 프리쉬 라 벨 드 메 는 산업 및 문화유적 아카이브 공간 멀티미디어 제작 및 발표 공간 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공간 총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곳에서는 연간 3,000시간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며 500건 이상의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또한 40개국 이상 국가 및 180여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이곳은 저렴한 임대료 및 집적화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용이하다는 게 큰 특징임
- 마르세이유 시는 2013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는데 마르세이유의 문화적 잠재력을 입증하는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존재가 선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만큼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음
- 2006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투자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개발하여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2008년 예술단체의 기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인 'CADO'를 창립하여 마르세유시와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형성함
- CADO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분야 혁신적인 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임. 일대일 컨설팅, 집단 상담 및 워크숍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 기업들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임

6. 후속 과제

6.1. 제안 배경

- (1) 본 연구는 영등포의 문화도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 연구의 성격을 가짐
- (2) 본 연구는 영등포 문화도시 전략 수립에 참고할 기존 자료 및 현황 분석, 지역 내 의견 수렴, 영등포 문화도시의 주요 방향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음
- (3) 이에 향후 영등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6.2. 주요 내용

- (1) 영등포의 문화도시 사업 준비와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컨설팅
- (2) 영등포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영등포 내 권역별 세부 현황 조사 및 전략 수립 연구
 - 대림-도림 권역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가칭)아시아 예술마을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문래-영등포 : 영등포 문화협치형 도시재생 활성화와 문화예술창작촌 생태계 사업
 - 양평-당산 : (가칭)선유 창의예술교육과 생활예술 마을 만들기
 - 신길-여의 : (가칭)여의도 생태문화섬 만들기
- (3) 영등포 문화도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연구
 - 영등포공유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협치(거버넌스)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연구
 - 영등포 지역 내 민간 주체 발굴과 시민 주도형 정책 구조화를 위한 사업 발굴 연구
- (4) 기타
 - 영등포 문화도시 중장기 미래비전 연구 : 기후위기와 생태문화도시, 포스트휴먼(기술혁신) 시대의 영등포 문화정책(문화산업과 일자리), 문화적 도시재생과 제조업 재활성화 등
 - 영등포 문화시설공간의 융복합 정책 수립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서관, 청소년시설, 생활문화공간 등의 통합 관리 체계와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 영등포구형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구축 및 복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 영등포구 문화시설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실태조사
(영등포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영등포문화재단

연구책임자 ——— (사)문화사회연구소

* 이 보고서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가공하고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